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소정**
공동연구원 **구상미, 이유진, 이춘영,
최은아, 김마리나, 문남정,
이선희**
자문위원 **장준호, 정현선**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북 내 유·초 연계 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분석하여,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정책 제안은 교육 내적인 의미에서 유·초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유·초 연계 교육의 실현을 위해 유·초 연계 교육의 최근 동향 분석,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해외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분석,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유치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유·초 연계 교육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 유·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놀이를 통한 유·초 연계 교육을 추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운영학교는 물리적 통합은 이루었지만 교육 내적인 의미에서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유·초 연계 교육의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도 유·초 연계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의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해외의 경우, 유·초 연계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심층면담 결과,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면을 듣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교육환경,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차이를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치원생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초등학생들의 입학 적응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육환경,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유·초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초 연계 교육의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는 교사가 많았다.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으로 교육환경, 교수 방법 등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운영 실제 상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상호 협의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모형과 상호 공유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모형으로 나누어 보았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정책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문화로 구분하여 5가지 제시하고, 관련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 책 제 언

- 교육과정 영역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 및 보완
- 교수·학습 영역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
 - 상호 수업 참관 및 수업 나눔 활성화
- 교원 영역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개발 및 운영
 -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연계 운영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영역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 지역사회 기반한 유·초 연계 교육시스템 마련
- 문화 영역
 - 교육과정 사전 협의회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공유
 -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구회나 교사 동아리 지원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용어의 개념 및 정의	5
II. 이론적 고찰	8
1. 유·초 연계 교육의 최근 동향	8
가. 유·초 연계교육과 통합학교	8
나. 놀이를 통한 유·초 연계 교육	9
다. 타 시도 유·초 연계 교육 현황	10
라. 경상북도 유·초 연계 교육 현황	12
2.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연구	15
가. 교육과정 연계성 연구	15
나. 인식 및 요구도 연구	18
다. 유·초 연계 프로그램 연구	19
3. 해외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4
가. 미국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4
나. 일본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6
다. 프랑스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7
라. 핀란드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8
마. 중국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9
바. 영국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30
사. 독일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31
아. 요약 및 시사점	32
III.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34
1.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면담조사 결과 및 분석	34
2.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9
IV.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65
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65
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66

V. 정책적 지원	70
1. 정책 영역 : 교육과정	71
2. 정책 영역 : 교수·학습	74
3. 정책 영역 : 교원	76
4. 정책 영역 : 학부모 및 지역 사회	78
5. 정책 영역 : 문화	80
VI. 요약 및 제언	83
1. 요약	83
2. 제언	89
※ 참고 문헌	90

☰ 표 차례

<표 1> 유·초 연계의 개념	6
<표 2> 시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현황(개교 예정 포함)	8
<표 3> 시도교육청별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정책 현황	10
<표 4> 2021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경상북도교육청, 2021)	12
<표 5>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20호)	13
<표 6>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19호)	13
<표 7>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20호)	14
<표 8>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비교	15
<표 9> 북버디 프로그램 개요(이경민, 2015)	20
<표 10> 5세 유아를 위한 유·초 연계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프로그램 (조형숙, 2016)	21
<표 11> 유·초 연계 교육활동 목록(이보경 외, 2019)	23
<표 12> 국가별 유·초 연계 교육 현황	32
<표 13>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에 대한 면담 내용	34
<표 14> 근무 기관 응답 현황	39
<표 15>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40
<표 16> 병설 유치원 근무 여부 응답 현황	41
<표 17>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 응답 현황	41
<표 18> 병설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와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42
<표 19> 교직 경력 응답 현황	42
<표 20> 교직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43
<표 21>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 응답 현황	44
<표 22>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44
<표 23>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응답 현황	45
<표 24>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응답 현황	45
<표 25>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	46
<표 26>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	47
<표 27>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현황	48
<표 28> 유치원 교육의 영향에 대한 응답 현황	48

<표 29> 현행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응답 현황	50
<표 30>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현황	50
<표 31> 근무 기관과 유·초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간의 연관성	51
<표 32>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에 대한 응답 현황	52
<표 33>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현황	52
<표 34>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에 대한 응답 현황	53
<표 35>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에 대한 응답 현황	53
<표 36>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에 대한 응답 현황	54
<표 37>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55
<표 38>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목적	56
<표 39>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법	56
<표 40> 교육과정 문서상 연계 방법에 대한 응답 현황	57
<표 41>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한 응답 현황	57
<표 42> 근무 기관과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 간의 연관성	58
<표 43>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 방법에 대한 응답 현황	59
<표 44>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59
<표 45>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60
<표 46>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현황	62
<표 47>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내용 대한 응답 현황	62
<표 48>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 내용 대한 응답 현황	63
<표 49>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 내용 대한 응답 현황	63
<표 50>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응답 현황	64
<표 5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한 응답 현황	64
<표 5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영역 및 과제	70
<표 53> 교육과정 영역의 정책과제	71
<표 54>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보완)	72
<표 55> 2021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보완)	72
<표 56> 교수·학습 영역의 정책과제	74
<표 57> 교원 영역의 정책과제	76
<표 58> 학부모 및 지역 사회 영역의 정책과제	78
<표 59> 문화 영역의 정책과제	80



그림 차례

[그림 1] P-3 접근법 계획, 실행, 평가를 위한 틀	24
[그림 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절차	66
[그림 3]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영역	7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교육구성원들의 ‘연계 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4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 과제에는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기반 마련’,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 학년 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마련,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 연계 학습 및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 소규모학교, 통합학교 교육과정 모형 개선 방안(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 지원, 온라인 수업 등)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동안 분리나 구분이 당연시되었던 학교급 간, 그리고 개별 학교급 내 학년 군별 교육과정 및 학생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대전일보, 2021.08.23.). 또한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유·초 연계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Starting Strong의 주제(agenda)로서 유·초 연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7; 박진이, 2018).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연속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이진우, 2021).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학교 운영방식은 아동이 상급 교육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상급 교육기관 적응을 위한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창복, 이신영 2020; 곽노의, 김창복, 이경순, 2012;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9; 이진우, 2021).

1)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연계되는 시점은 유아(학생)들에게 중요한 삶의 순간이다(Carsaro & Molinari, 2005; O’Kane, 2016; 양지에 외, 2018).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는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성취를 높이며 긍정적인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기의 교육보다도 중요하다(Caspe, Lopez & Chattrabhuti, 2015; 양지에 외, 2018).

유아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간의 유치원 생활을 마치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유치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이제 곧 유치원을 떠나는 만 5세 유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떠기도 하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과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에 초등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기도 한다(최은진, 2021). 초등학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낯섬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 신학기 증후군으로 대변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초기 학교 적응 문제는 매년 3월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새 친구, 새 교실, 새 담임교사 등 낯선 환경에 노출된 1학년 학생들은 급격한 전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김정호, 박효정, 2005; 나정, 장명림, 1997; 염지숙, 1999).

더 나아가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면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학습 방법, 시설,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김순녀, 2010).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최은진, 2021). 따라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치원을 학제에 포함시키고,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김수영, 2005; 서울특별시교육청, 2009).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적응 측면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은 학생들의 낯선 초등학교 생활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연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유아들의 학습 준비도, 사회성과 학력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문혜련, 2009).

2)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980년대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과정에서도 기본·구성 방향을 살펴보면 만 5세 누리과정은 생활 속에서의 놀이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교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요소들이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도록 구성하였다(최은진, 2021).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기본생활습관과 규범을 익히며, 자신과 주위 현상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심신 발달을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 구성의 중점 등 총론 전반의 구성

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체계와 통일하였다(오인희, 2020). 특히 역량을 중심으로 개정된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 교육 목표 등에 반영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때 누리과정의 5개 영역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내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로써 누리과정은 유·초 연계에 있어서 보다 적정화된 교육내용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및 접합성을 확보하였다(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2019).

누리과정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강화는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2016)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 발표 보도자료(교육부, 2016)를 통해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의 핵심 중 하나가 유·초 연계 교육의 강화’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 2학년 군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안전한 생활’의 교수학습 방향에는 「5세 누리과정」의 각 교육내용 영역과 연계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6).

이와 같이 교육과정 상의 유·초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교급 간의 교육내용의 동질성,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발달상 유사한 단계에 있다는 발달 측면, 교육과정이 단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유아들의 학습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때문이다(장명림, 현주, 박균열, 이정옥, 2014; 이형빈, 2019).

3) 유·초 연계 교육의 실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관계에 관심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유·초 연계 교육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원만한 연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 학교급 교사 간 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영(2019)의 연구에서는 예비 유아교사가 초등교육과정에 대해 배워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2.6%로, 예비 초등교사가 누리과정에 대해 배워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2.3%로 나타나 유·초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유·초 연계 교육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장명림 외(2014)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간 서로의 교육과정 이해정도에 대해 유치원 교사는 67.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초등학교 교사는 61.7%가 알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유치원의 누리과정에 대해 이해정도가 낮으며 교육 계획 시 서로의 교육과정을 참고한 경험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참고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이지혜(2016) 연구에서 유·초 연계 교육의 실태와 관련하여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는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연계 교육을 실제 수업에 반영하여 실천하는 빈도수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진이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유·초 연계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유·초 연계에 대해 고려한 적 없었지만 연구자와의 면담, 수업 동영상 보기를 통해 유아교육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학기 말에 이르러서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 교육의 필요성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연계 교육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간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사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안소영, 안지혜, 2018). 따라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유·초 연계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상북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유·초 연계 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교육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탐구하였다.

[연구 문제 1]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책들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생의 인식 및 요구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4]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초 연계 교육의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셋째,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분석

유·초 연계 교육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연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타 시도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설문조사

경상북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현황, 저해 요인,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 내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이다.

3) 초점집단면담(FGI)

경상북도 소재의 한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만 5세 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면담자를 선정하여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학생들의 입학 및 적응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요구 등이다.

3. 용어의 개념 및 정의

가. 유·초 연계 교육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육에서의 연계성은 학년이나 교육 기관의 전환기에 있는 아동이 학습할 교육 내용과 수준은, 계속성과 계열성을 가지고 조직되어야 하며, 상호 간에 적절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이진우, 2021).

Tyler는 교육과정의 연계성 원칙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교육과정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의 요소, 지식, 기능을 중심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계속성은 두 개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요소, 지식, 기능의 교육내용이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열성은 두 개의 교육과정의 요소, 지식, 기능이 발전적인 형태로 선정, 조직하여 반복되는 것이 아닌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성은 교육과정이 두 개 이상의 학급이나 교육과정 간에 교육내용의 요소, 지식, 기능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신유진, 2014; 최은화, 2021).

유은주(2010)는 연계에 대한 이해가 '전이(transition)'를 넘어 '연속성(continuity)'으로 재개념화될 경우 연계 교육은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유아교육에서 논의

되는 연계를 개념 분석했을 때 크게 두 차원 즉, 연계의 협의적 이해인 ‘전이(transition)’와 광의적 이해인 ‘연속성(continuity)’에서 논의됨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전통적 개념으로 가정에서 학교,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유아원에서 유치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의 교류 활동(transactional activity)을 의미한다(윤성희, 2015). 반면 후자는 영아에서 초등까지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교육에서 유사 혹은 동일한 원리의 적용이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을 의미한다. 연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gap)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학교 단계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시켜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영석(1989)은 연계 교육에 대한 개념을 광의적인 개념과 협의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협의적인 개념은 좁은 개념으로 교육과정 상의 연계를 의미하고, 광의적인 개념은 유아교육기관과 초등교육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두 기관 간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문화적 차이, 제도와 정책, 교육행정과 교육재정의 지원체계,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각 교육 기관의 시설과 설비에 관련된 규칙 등에 대한 연계를 의미한다.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면, 연계성은 학년 간, 학교급 간의 교육과정과 제도, 행정체제, 교육환경 및 풍토 등이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적절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교육과정 상에서 적절한 관련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이진우, 2021). 최은화(2021)는 여러 연구자들이 정의한 유·초 연계 개념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유·초 연계의 개념(최은화, 2021)

연구	유·초 연계의 개념 정의
Lawrence(1985)	교육의 제도권 안에서 한가지 수준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수평적 관계와 수준의 사이를 계획하는 수직적 관계로서의 교육 연계
Tyler(1949)	교육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의 요소, 지식, 기능이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연결된 교육
이경민(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발달적 측면 :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언어적 측면에서 0세~8세 유아의 유사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연계 • 교육적 측면 : 학습의 연속선상에서 교육과정 구성,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가진 교육 연계
윤진옥(2009)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수평적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연계
윤진옥(2010)	협의적 이해개념의 전이, 광의적 이해개념으로의 연속성으로 유·초 연계의 재개념화
최경주(2008)	교육의 계속성, 연속성, 통합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 교사 교육, 교육과정을 서로 연관시키는 교육 연계

최근에는 ‘연계’라고 했을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옮겨가는 특정 시기의 생태적 전이 (transition)뿐만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전 학년에 이르는 교육적인 원리와 내용을 대상으로 삼는 연속성(continuity)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다(김창복, 2011; 김창복 외, 2020). 본 연구에서도 유·초 연계의 개념을 광의적 관점인 연속성의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연속성으로서의 연계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면 유아들은 불안과 걱정을 안고 초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향후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Elliot, 1995; Monkeviciene, Mishara, & Dufour, 2006; 안소영 외, 2018).

나. 공동교육과정의 개념

교육과정이란 의도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에서 유아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공통적인 기준을 뜻한다(교육부,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동교육과정이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원의 조직, 유아와 학생의 실태,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 의 실태, 교육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서로 협력하여 편성·운영하며 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 모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 교육과정을 뜻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유·초 연계 교육의 최근 동향

1980년대 이후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 교육은 끊임없이 논의되었고, 2000년대 이후로 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삶을 연령에 따라 분절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 기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를 분절시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안소영, 안지혜, 2018).

교육부가 2021년 4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 소규모학교, 통합학교 교육과정 모형 개선 방안’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고, 최근 유·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놀이 연계 학습과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을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최근 놀이를 통한 유·초 연계 교육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초 연계교육과 관련된 최근 동향 및 타 시도교육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유·초 연계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 유·초 연계교육과 통합학교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81년 9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화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일 학교급 간의 통폐합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내 학령인구는 매년 급감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는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통합운영학교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 학교 유지라는 현실적 요구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된 통합 운영학교 정책이 도시지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설립이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박선옥, 2021).

<표 2> 시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현황(개교 예정 포함)

교육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통합학교	3	3	1	7	1	1	2	9	5	8	20	16	6	16	12	6	116

※ 출처 :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 체제 운영 방안(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1년 3월에 개교한 퇴계초중학교는 강원도 첫 도시형 통합학교로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연계 교육을 위한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3학급 62명, 초등 31학급 740명, 중학 4학급 116명 등 총 918명의 학생이 배정되었다. 또한 2021년 3월에 개교한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는 서울지역 최초의 유·초·중 통합학교로 중학생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돕는 ‘등원맛이 봉사’활동을 한다. 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까지 받는다(동아일보, 2021.05.06).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학교는 학령 인구감소 및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되어 최근 유·초·중 통합 미래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초·중, 중·고, 초·중·고 간 통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유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초·중, 중·고, 초·중·고 통합학교가 병설 유치원까지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유·초·중 통합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개최한 ‘2019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으로 만 5세에 해당하는 1년을 기간 학제화하는 K학년(유아교육)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에듀인뉴스, 2020.01.17).

최근 미래형 공립학교 모델로 ‘통합학교’가 떠오르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 단절된 교육과정,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 및 경험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통합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이 세부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유·초 통합학교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내적인 의미에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놀이를 통한 유·초 연계 교육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의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추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명시하며 저학년 교과 및 교수·학습 방법에서 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과 연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창복 외, 2020).

시도교육청별 정책연구 수행 목록에서도 관련된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유·초 연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활동을 강조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놀이를 통한 유·초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유·초가 연계한 놀이 활동과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이 확보된 주간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20년 ‘초등 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놀이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1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의 경북 정책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유치원 연계 ‘놀이 학기제’를 운영하고, 경북 특화 교육과정으로 ‘놀이 중심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초 연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놀이’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유·초 연계 교육의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초 연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초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유·초 연계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 타 시도 유·초 연계 교육 현황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유·초 연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청의 연간 운영을 위한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업무계획 문서를 통해 정책의 주안점, 정책의 시행 수준 등을 확인하며 각 시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 및 시도교육청별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영역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문화로 나누고, 영역별 정책 추진 내용을 다음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시도교육청별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영역별 정책 추진 내용

지역	영역	정책 추진 내용
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 성장배려학년제 : 온·오프라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 불록타임 확대, 놀이시간 및 놀이환경 구성
	교원	▶ 유·초 상호 이해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 전문담임교사제 :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를 연속해 맡음 ▶ 성장배려학년 담당 교사제 : 1학년 담임교사 2명 이상을 해당 학교 1년 이상 재직된 교사로 배치

지역	영역	정책 추진 내용
대전시 교육청	교육과정	▶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 : 유치원 만 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의 통합교육과정인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을 개발, 매년 꿈자람과정 편성·운영 지침 발간 및 보급
	교수·학습	▶ 학교급 간 상급학교 진급에 따른 환경 적응 지원과 학습결손 처치를 위해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 연계 교육 우수사례 및 자료 발굴·보급 ▶ 연구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특색 있는 연계 교육 운영 모델 발굴
	문화	▶ 초·중·고 연계 에듀 브릿지 프로젝트 : 인근 학교 간 결연체제를 구축하여 교과 학습 방법,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진학 정보 공유 등 연중 체계적인 연계 교육활동 전개 ▶ 연구회 운영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과정	▶ 안성맞춤 교육과정 : 유치원과 연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초1, 2학년 학생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지원
	교수·학습	▶ 놀이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안정과 성장을 느끼는 교실 문화 조성
	교원	▶ 초등학교 1, 2학년 전문 담임 및 협력교사제 운영
	학부모 및 지역 사회	▶ 전환기 학부모 교육을 통한 신입생 학부모의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
	문화	▶ '쉬운 한글·재미있는 수학' 함께 배우고 나누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충청북도 교육청	교수·학습	▶ 징검다리 교육 지원 사업 : 예비진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에서 자신이 배울 수업 과정, 수업방식으로 교육 ▶ 선도학교 운영
	문화	▶ 교육연구회 운영
경상남도 교육청	교수·학습	▶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원
강원도 교육청	교수·학습	▶ 유·초 연계 교육과정 저변 확대를 위한 운영 모델 보급 ▶ 유·초 연계 교육 자료 보급 ▶ 연구학교 운영
	교원	▶ 유·초 공동연수 운영
	문화	▶ 유·초 연계 교육과정연구회 운영

라. 경상북도 유·초 연계 교육 현황

2021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의 경북 정책 기본 방향에 <표 4>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의 일환으로 ‘놀이수업 학기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 누리과정 연계 놀이 중심 교육과정, 놀이 시간 및 놀이 수업 등 연계 교육의 초점이 ‘놀이’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초 연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초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유·초 연계 교육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유·초 연계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살릴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2021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경상북도교육청, 2021)

<p>1.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p> <p>1-1.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p> <p>1-1-1.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연계 ‘놀이수업 학기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누리과정 연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신체 특성, 흥미, 활동량, 안전 등을 고려한 교실 환경 구성 - 수업 시간 유연제 적용 및 중간 놀이, 자유 놀이 시간 확보 - 학습 주제 관련 놀이 중심 수업 전개 - 학습활동에 대한 부담 최소화
<p>1-1-2. 경북 특화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 초등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중심 1~2학년 교실 및 공간 재구조화 추진 -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전개 - 놀이 교구 및 놀이수업 자료 지원 - 놀이 공동체 운영 : 교사 연구회, 학급, 학부모 지원단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20호)」에서도 교수·학습 방법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놀이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표 5> 참조).

<표 5>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20호)

제3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9) 학습 주제 및 성취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 연계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19호)」에서는 유치원 교육 계획 수립 시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상호 교육과정 공유, 수업 참관 및 협의회,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서로의 교육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연계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활동들은 초등학교 교사와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하여 초등학교 교사 또한 유치원과의 연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표 6〉 참조).

<표 6>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2020-19호)

제4장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6. 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

- 가. 유치원 교육 계획 수립 시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고려한다.
- 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상호 교육과정 공유, 수업 참관 및 협의회,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서로의 교육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연계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 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2항).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에는 〈표 7〉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형으로 공동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 초·중 연계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총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4가지 유형에는 초·중 연계만 포함되어 있어 유·초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유·초 연계 학교를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7> 2021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

- 운영 방침
 - 공동 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 초-중 연계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연계 체제 구축
 - 내실 있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희망 학교 및 학급 중심 운영
 - 공동 교육과정 운영 유형에 따른 공모 시기 분산 운영

- 공동 수업 학교
 - 인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중심학교 및 협력학교 간 공동 수업 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동 수업 운영
 - 공동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 단위 및 학년·학급 단위로 운영 가능
- 초-중 연계 학교
 - 인근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 학교급 간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 초-중학교 간 예술 및 체육 교과 중심 공동 수업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연계 체험활동 및 동아리 운영

경상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교육과정 주요 정책으로 초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 3대 전략 9대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중 첫 번째 전략은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역량과 배움을 연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의 철학과 학생의 삶을 담은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계획하고 선택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놀이 수업 학기제, 전환기 진로 교육 집중 학기제 등 학교급 간의 연계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수업, 원격 화상 수업, 도·농 상생 학교, 초·중 연계 학교 운영 등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데일리대구경북, 2021.02.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간의 연계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유·초 연계 교육 관련 연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교육에 관련한 연구의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120편(58.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식 및 요구도에 관련된 연구가 56편(27.3%)으로 많았다. 그리고 연계 교육 경험에 관련된 연구가 13편(6.3%), 교육 평가 관련 연구 5편(2.4%), 철학 4편(2.0%), 연구 동향 분석 3편(1.5%), 기타 2편(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환경, 공간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었다. 인식 및 요구도에 대한 기초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진 반면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 반영 등의 방향 모색까지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박은영 외, 2018).

따라서 유·초 연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가운데 유·초 교육과정의 연계성,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유·초 연계교육과 관련된 타 시도교육청의 정책연구를 살펴보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교육과정 연계성 연구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정된 누리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 즉 ‘구성 체계,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목적 및 목표, 영역별 내용의 축소 및 간략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조’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유·초 연계 측면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김창복 외, 2020).

<표 8>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비교

	2019 개정 누리과정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구성 체계	누리과정의 성격 제 1장 총론 I.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목적과 목표 3. 구성의 중점 II. 누리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2. 교수·학습 3. 평가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2. 내용	교육과정의 성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 급별 교육 목표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2019 개정 누리과정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II. 의사소통 1. 목표 2. 내용 III. 사회관계 1. 목표 2. 내용 IV. 예술경험 1. 목표 2. 내용 V. 자연탐구 1. 목표 2. 내용	2. 교수·학습 3. 평가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각 교과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성격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추구하는 인간상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의적인 사람 4. 감성이 풍부한 사람 5. 더불어 사는 사람	1.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2.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4.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목적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

	2019 개정 누리과정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능력을 키운다.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3.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4.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5.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3.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범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 및 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 및 금융교육,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교육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변화를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측면에서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에서 누리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기술함으로써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둘째, 영역 내용의 축소 및 평가의 간략화를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였다. 셋째,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추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명시하고, 저학년 교과 및 교수·학습 방법에서 놀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과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창복 외, 2020).

박현수(2021)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타난 구성 체계가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똑같지는 않지만 두 교육과정 모두 공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며, 교육구성원이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을 제시하였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에 나타난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인간상의 내용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모두 유아와 아동, 즉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고, 누리과정의 목적과 초등학교 교육의 총괄 목표 모두 바른 인성 함양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2019 개정 이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보다 연계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았다.

나. 인식 및 요구도 연구

이지혜(2017)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실태와 개선 방향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아 교사와 초등교사들은 아동의 계속적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상급학교인 초등학교에서의 기본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유·초 교육의 연계 실태에 대해 유아 교사와 초등교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대 교육과정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초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연계 교육을 실제 수업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빈도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상의 어려움에 대해 교사들은 업무 과다와 환경적 어려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교육과정 상의 근본적 차이,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 교사에 대한 교육 부족과 교사 인식의 미흡 등을 유·초 연계 교육의 방해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교사들은 연계 교육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나 기준의 제시, 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 시간 편성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 모색, 연계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 상대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연수 강화, 연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 교육 실시, 연계를 위한 실제적 교사 연수와 교사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원호 외(2019)는 유·초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사는 전반적으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이 학생의 실생활과 발달 특성과 유·초 연계 교육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관리자의 안정적인 학교 운영, 부모 민원 등이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는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이 학생을 더 고려한 방향으로 개정되길 원했고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였다. 또한 학생이 적극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된 교실 공간, 유휴 교실을 활용한 환경구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비 등을 요구하였다. 넷째,

교사는 성공적인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사와 부모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특히 부모 교육의 의무화를 강조하였다.

장명림 외(2018)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고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부모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40분 수업과 10분 쉬는 시간에 대한 적응 등이며,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자녀의 발달 수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의 어려운 점은 갑자기 어려워지는 학습 내용과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후 학부모의 어려움은 자녀의 사교육 비용 부담과 숙제 지도 및 준비물 챙겨주기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학 준비 사교육은 기초학습 실시가 가장 많았으며, 실시 이유로는 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 입학 전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입학할 초등학교 생활과 환경적 특징 등이었으며, 수집 방법으로는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스스로 찾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유치원에 대한 지원 요구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요구로 개별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이해, 학교 적응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다. 유·초 연계 프로그램 연구

최근 유·초 연계 프로그램 관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국어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인 유·초 연계 북버디 프로그램(이경민, 2015), 수학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인 유·초 연계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프로그램(조형숙, 2016), 모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유·초 연계 프로그램(이보경 외, 2019)을 찾을 수 있었다.

1) 국어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

이경민(2015)은 유·초 연계 북버디 프로그램은 또래 교수자인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친사회성과 읽기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는 상급 학생 또래 교수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에서는 각자 자신의 버디를 만나 인사한 후 교사가 심화활동을 포함하여 오늘의 버디 활동을 설명하고, 전개에서는 활동 시작 전에 유아가 가지고 온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사가 소개해준 활동을 짝버디와 함께 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된 언어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또래 교수자는 활동 내용과 방법을 또래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모델링을 보이기, 안내하고 지도하기, 함께 활동하기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2학년 학생들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관련 활동을 함께 하며 유치원생을 지도하는 또래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치원생들은 버디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고

버디가 진행하는 활동에 협동하며 참여하는 또래 학습자의 역할을 한다(〈표 9〉 참조).

<표 9> 북버디 프로그램 개요(이경민, 2015)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사전활동	1	버디 활동 소개하기 버디에게 편지쓰기	
	2	버디 만나기 - 편지 전달 및 함께 놀이하기	
본 활동		기본활동	심화활동
	3	그림책 읽기 - 형님 버디 : 동화책 읽어주기 • 제목 읽고 내용 예측하기 • 내용 읽어주기 - 동생 버디: 동화 듣기	동화내용 함께 나누기
	4		독서 퀴즈
	5		
	6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7		
	8		뒷이야기 꾸미기
	9		
	10		등장인물의 느낌 표현하기
	11		
	12		책만들기
	13		
	14		
15			
사후활동	16	활동 마무리하기 - 버디 활동 회상하기 - 버디에게 상장과 메달 선물하기 - 버디에게 감사 편지쓰기	

2) 수학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

조형숙(2016)은 5세 유아를 위한 유·초 연계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의 유아들에게 적용하여 유아들의 수학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유아들은 수학능력이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초 연계를 위한 수학교육 내용 분석 결과, 초등 1학년 1학기의 수학교육 내용이 수 세기와 연산, 도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유·초 연계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내용을 5개의 수학교육 내용 중 특히 수와 연산, 도형과 공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수학적 경험이 각기 다른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유아의 수학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 감상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의

매체를 다양화하고 스토리 구연 방법도 유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표 10〉 참조).

<표 10> 5세 유아를 위한 유·초 연계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프로그램(조형숙, 2016)

수학을 즐기며 이해하는 유아	
목적 및 목표	<p>기초적인 수학 개념 이해 수학적 의사소통 증진 수학적 표상 능력 증진</p> <p>수학적 문제해결력 증진 수학적 추론 능력 증진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장</p>
교육 내용	<p>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고 없는 것 이해 •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표상 • 0에 대한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여 구체물의 수 나타내기 • 1~5 사이에서 1 큰 수와 1 작은 수 • 묶음 세기와 날개 세기의 다양한 표상 만들기 • 더 많아지고 더 작아지는 수학적 상황 인식 • 더 많아지고 더 적어지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표상 • 구체물로 표현한 수학적 상황에 만든 표상 활용하기
	<p>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과 방향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주어진 정보로 해결하기 • 같은 모양의 구체물끼리 모아 보고, 수량 알아보기 • 여러 가지 도형을 보고 우리 동네와 생활 주변에서 해당되는 사물 찾기 • 입체물의 특성을 반영한 수학 수수께끼 해결하기
	<p>기초적인 측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를 비교하고 길이에 대한 글자 카드 짝짓고 말하기 • 높이를 비교하고 높이에 대한 글자 카드 짝짓고 말하기 • 넓이를 비교하고 넓이에 대한 글자 카드 짝짓고 말하기 • 양을 비교하고 양에 대한 글자 카드 짝짓고 말하기 • 눈감고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비교하기 활동
	<p>규칙성 이해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물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고 구체물로 규칙 이어가기 • 구체물의 규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해보기 • 동작을 활용한 규칙 표현 이해하고 표현하기 • 규칙 정보에 활용된 것과 다른 종류의 것으로 규칙 표현하기 • 규칙이 있는 구체물의 중간과 처음 부분을 완성하기 • 기본 도형, 기본 삼원색 외 생활 주변의 구체물의 다양화를 통한 규칙 이해하고, 만들기
	<p>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한 분류하기 외에 분류 기준의 정보 다양화하기 • 타인이 분류한 기준 파악하여 이어 분류하기 • 생활 속 분류를 통한 편리함에 관심 갖기

수학을 즐기며 이해하는 유아

	수학적 과정 기술	• 문제 해결하기 • 표상하기 • 추론하기 • 연계하기 • 의사소통하기	
	수학적 태도	• 호기심 • 적극성 • 주의집중 • 지속성 • 개방성	
교수 학습 방법	교수-학습 과정	• 수학 스토리 감상하기 • 수학 요소 탐색하기 • 수학적 문제 해결하기 • 심화하기	
	교수-학습 자료	수학 스토리 감상자료	융판 동화, 막대 동화, 테이블 동화, ppt, 플래쉬, 1인극 자료, 음악, 그림, 포스터, 영상
		수학 탐구자료	실물, 그림, 사진, 숫자모형 및 카드, 그리기도구, 쓰기도구
	교수 전략	문제 해결하기, 추론 및 증명하기, 의사소통하기, 연결하기, 표상하기	
평가	질적 평가	유아의 반응과 행동 관찰, 교사 반성적 저널	
	양적 평가	수학능력검사	

3) 모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이보경 외(2019)는 유·초 연계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유·초 연계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은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통합 교과서, 안전한 생활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프로그램은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학습, 학교생활 적응, 기본생활 습관, 또래 관계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기초학습의 내용은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교육의 내용인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수학(수 세기)으로 구성하였고, 학교생활 적응의 내용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경험하는 교육환경, 수업 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기본생활 습관의 내용은 유치원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스스로 행해야 하는 행동(소지품 챙기기, 가방 챙기기, 안전 등)으로 구성했고, 또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주로 행하던 혼자 놀이에서 벗어나 또래 친구와 관계를 맺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함께 작품 구성이나 활동을 통해 양보, 타협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유·초 연계 교육활동 목록(이보경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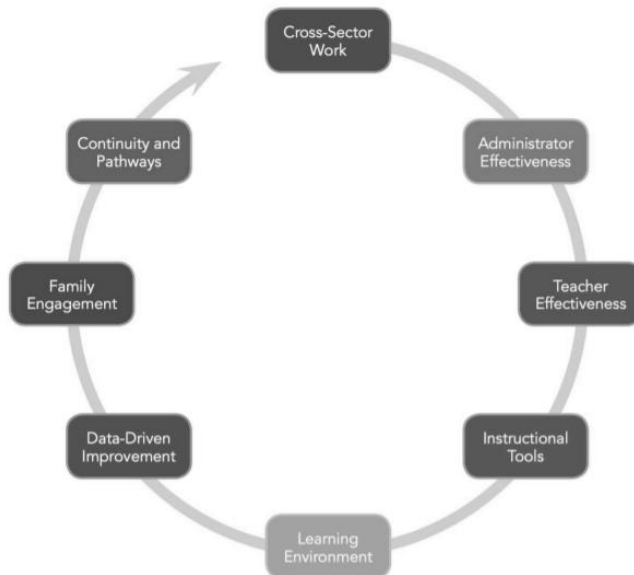
생활 주제	영역	내용	기초 학습	학교 생활 적응	기본 생활 습관	또래 관계
유치원과 친구 - 학교	학교 적응	초등학교는 어떻게 생겼을까? (미술)	●	●		
	통합 교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달라요 (이야기 나누기)	●	●	●	
	국어	자음과 모음으로 이름 만들기 (언어)	●	●		●
	수학	우리학교 화단 꾸미기 (미술)	●			●
	안전	약속 나무 (이야기 나누기)	●	●	●	●
봄 - 봄	학교 적응	내 가방은 내가 챙겨요! (게임)		●	●	●
	통합 교과	꽃을 찾아가는 나비와 벌 (게임)			●	●
	국어	봄 단어 암호 풀기 (언어)	●			●
	수학	친구와 함께하는 숫자 그림 맞추기 (미술)	●			●
	안전	산에 불이 났어요! (게임)		●	●	
가족 과나 - 가족	학교 적응	나만의 필통 꾸미기 (미술)		●	●	
	통합 교과	가족에게 쓰는 비밀편지 (과학)	●		●	
	국어	우리 집 가계도 (이야기 나누기)	●			●
	수학	손바닥 나무 만들기 (미술)	●			●
	안전	길을 잃어버렸어요 (언어)	●		●	
여름 - 여름	학교 적응	나의 소중한 친구 (미술)		●	●	●
	통합 교과	물고기 부채 만들기 (미술)	●		●	
	국어	주룩주룩 비가 내려요 (언어)	●		●	
	수학	여름 덧셈 퍼즐 (수 조작)	●			●
	안전	교통안전 OX 퀴즈 (이야기 나누기)			●	●

3. 해외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초 연계 교육은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심사이다(고정곤, 이선원, 김의석, 이인원, 2014; 김민진 외, 2018).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중요한 당면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김민진 외, 2018). 따라서 해외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¹⁾

미국은 주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의 책무를 지고 있고, 교육구 단위의 교육지역자치가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구 및 주정부 자체적인 노력이 모여 유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책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유·초 연계도 마찬가지로 유·초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및 학계의 요구가 교육구 단위의 변화를 이끌어왔고, 그 변화가 전국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유·초 연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은 'P-3 접근법(PreK-3rd Approach)'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림1] P-3 접근법 계획, 실행, 평가를 위한 틀

1) 출처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20호 기획기사(2018.01.31.): 각국의 유·초등 연계교육 현황

P-3 접근법은 유아교육(만 3~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만 8세)까지의 유·초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유·초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획, 집행, 평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정책 프레임이다.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대학이 주도하여 연구했으며, 전국 35개 교육구가 시범 연구에 참여했다. 이는 대체로 영역 간 협업(Cross-Sector Work), 행정가 효과성(Administrator Effectiveness), 교사 효과성(Teacher Effectiveness), 교수학습 방법(Instructional Tools), 학습 환경(Learning Environment), 데이터 기반 개선(Data-Driven Improvement), 학부모의 참여(Family Engagement), 지속성(Continuity and Pathways)의 요소를 중점으로 개별 요소별 목표와 구체적 전략, 평가계획 등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P-3 접근법은 연방 또는 주 정부 단계에서 투입하여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안내서와 같은 개념으로 교육구에서 유·초·중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유·초·중 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교육구는 이 P-3 접근법을 도입하여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워크숍, 교사의 전문성 개발 연수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유·초 교육 연계는 교육구가 그에 따른 주요 책무를 지고 있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주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 수준의 정책개발 연구소의 관련 지식 창출 및 확산, 개별 학교장의 리더십 등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유·초 연계 교육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유치원이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간 연계가 교사 단위에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립유치원과 공립 어린이집이 교육구 체제 안에 있는 경우 공립 교육기관 서로 간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며, 사립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도 조금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유·초 연계 교육 정책의 특징은 분권화, 연구기반, 자발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분권화는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구 단위에서 교육 행정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각급 교육기관의 교사, 학부모가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기반이라는 특징은 전국 단위의 교육연구소들이 유·초 교육 연계를 위한 현황을 조사하고,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P-3 접근법의 구체적인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성은 결국 이런 노력을 각급학교의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정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미국 사회의 교육제도에서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P-3 접근법을 활용한 유·초 연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한국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교육단계를 통합하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에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교육과정 및 교사 양성 등에서 연계성(alignment)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만 3~5세 교육과정과 공교육(K-3)과의 연계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문화가 미국보다는 더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교육정책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연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영·유아교육 공동중핵교육과정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 발달을 고려하기보다는 상급학교 진도에 유아교육과정의 진도를 맞추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형태의 모순이다. 최근 아동 발달 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과정을 탄탄히 개발하면서 동시에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일본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²⁾

일본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모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 스타트 플랜(幼児教育スタートプラン)’을 마련하였다. 해당 플랜은 유치원·보육원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는 ‘유·보·초 연결다리 프로그램(幼保小の架け橋プログラム)’을 축으로 유아교육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은 문부과학성의 유치원 교육요령(幼稚園教育要領), 보육원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보육지침(保育指針), 인정어린이원은 내각부(内閣府)의 교육보육요령(教育·保育要領)에 따르고 있는데, ‘유아교육 스타트 플랜’은 시설 종류에 상관없이 만 3~5세 대상 교육과정에 문부과학성의 유치원 교육요령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기우다(萩生田) 문부과학대신은 경제재정자문회의(経済財政諮問会議)에서 “유아기에 호기심, 끈기 등의 비인지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만 5세 아동의 생활과 학습기반을 보장하는 ‘유·보·초 연결다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유아기의 학습기반을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유·보·초 연결다리 프로그램’은 유치원·보육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각 개인의 발달상황을 파악하여 조기 지원을 실시하며, 초등학교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 1,000만 엔(한화 약 21억 2,255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학습기반이 되는 능력인 언어능력,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만드는 등 유아교육 추진체제 정비를 더욱 가속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보육원, 인정어린이원 등 지역의 유아교육시설 전체의 질을 높여 초등학교에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동시에 해 나간다고 하였다.

2)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신문(2021.05.19.): [일본] 만 3~5세 ‘유아교육 스타트 플랜’ 책정

다. 프랑스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³⁾

프랑스의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인 만 2세부터 5세까지는 우리의 유치원 과정에 해당되는데 의무교육기간은 아니나 프랑스 유아들의 90% 이상이 만 3세에 유치원 과정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다.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의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 교육과정으로 인식하여 자녀를 유아학교에 보내며, 사립 유치원 및 유아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더 높다. 프랑스에서 만 2~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 기간은 아니지만 다수의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유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유아학교(ecole maternelle)와 유아원(Jardin d'enfant)으로 나뉜다.

먼저, 유아학교(ecole maternelle)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 인식되며 프랑스 교육시스템 안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유아학교 역시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사들을 배정하도록 한다. 유아학교는 일반적으로 공립 초등학교 병설로 있는 공립 유아학교와 사립 유아학교로 나뉘는데, 초, 중,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사립 유아학교는 교육과정이나 시간표 등이 공립 유아학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는 일반적으로 만 3세에 등록을 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약 3년간 다니게 되는데 학교에 자리가 있거나 유아가 학교의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여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2세 유아도 입학도 가능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유아학교에 등록된 만 2세 유아는 전체 유아학교 등록 학생 중 약 11% 정도에 이른다.

유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후 3시 30분~4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는 시간표를 따르며, 초등학교 시간표 개혁으로 신설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역시 적용된다. 각 방과후 활동 시간표는 꼬뮌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의 경우 화요일, 목요일 3시 10분 경에 수업이 끝나고 4시 20분까지 방과후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몰아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꼬뮌도 있다. 대개 프랑스 유아학교의 방과후 활동은 예술, 체육, 과학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전체 수업일수, 수업시간이 같으며, 초등학교와 동시에 시간표 개혁이 진행된다. 방학을 포함한 학사 일정도 초등학교와 똑같이 진행된다. 공립 유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교원을 배치하는데 교원들은 초등교원으로 임용한다.

유아원(Jardin d'enfant) 역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유아들에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앞서 소개한 유아학교와 유사한데, 일반적으로 보육기관과 유아학교의 중간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이 제공되는 보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아원은 만 2세

3)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획기사(2015.06.23): 프랑스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부터 만 6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의 보육·교육 시간 역시 일반적인 보육기관과 같다. 특히 전일제, 반일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아학교와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보육기관에 더욱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교육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고용이 되나 초등학교원은 아니며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유아원 역시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공립의 경우에는 보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유아학교나 유아원에서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주로 규칙 지키기, 공동체 생활 습관 배우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간단한 쓰기, 숫자 알기, 내 주변의 환경 인식하기, 신체활동, 문화/예술 활동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이다.

라. 핀란드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⁴⁾

2015년부터 핀란드의 모든 아동들은 만 6세부터 시행되는 취학 전 교육(pre-school)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루어졌다. 취학 전 교육은 지난해까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실제 이 연령대 아동의 2%만이 참여하지 않았다. 2013년 이루어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몇몇 아동들이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집에 두기를 원하거나 통학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취학 전 교육에서 학생의 모국어를 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1972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핀란드 최초의 취학 전 교육은 1966년 라흐티(Lahti) 시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후 1970년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2001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취학 전 교육을 용이하게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최근 정부는 취학 전 교육(Pre-school)을 5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시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정식 교육을 시작하는 나이인 6세보다 1년 일찍 시작했을 때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핀란드 전역의 여러 지방 자치 단체가 이번 시범 제도에 참여할 것이며, 정책 입안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이 학습과 남녀평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인 리 안데르손(Li Andersson)은 큰 변화인 만큼 현 정부 기간 내에는 취학 전 교육이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에 도입된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 시작 1년 전부터 아동은 의무적으로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1.28): [핀란드] 2015년부터 미취학아동 교육(pre-school) 의무교육화,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20.01.15): [핀란드] 정부, 취학 전 교육을 5세 아동에게 확대할 계획

마. 중국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⁵⁾

학령기 이전의 교육(이하 ‘학전교육’)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과 교양 함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학전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면서 선진화된 학전 교육의 도입과 내부적 개혁을 통한 중국 학전 교육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학전 교육은 크게 탁아소, 유아원, 학전반(學前班)으로 구분된다. 탁아소는 3세 이전 아동의 집단 보육 기관으로서 아동의 교양 발달을 돕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아원에 대한 규정은 1996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유아원업무규정(幼兒園工作規程)」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원은 3세 이상 학령기 이전 아동에 대해 주로 전일제로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기초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교교육제도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991년 발표한 「학전반 관리 개선 및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改進和加?學前班管理的意見)」에서는 현행 학전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학전반 또한 학령기 이전 아동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의 일종으로 도시에서 유아원 수가 부족하여 실시하는 일종의 보조형식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전반에서는 5~6세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발달특징에 따라 각종 활동을 실시하며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준비를 도와준다. 학전반은 일반적으로는 1년제로 운영되거나 3개월 혹은 6개월의 단기반으로 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다.

중국 교육부는 「유아원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2001년 7월 「유아원 교육 지도요강(幼兒園?育指導綱要)」을 발표하였다. 이 「요강」에서는 유아원의 교육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건강·언어·사회·과학·예술 5개 영역에 대해 전면적이고 계몽적인 내용을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내용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아동의 정서, 태도, 능력, 지식, 기능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학전 교육은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의 선진적인 교육 경험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단행하였다. 2010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학전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關於當前發展學前?育的若幹意見)」에서 “학전 교육은 평생학습의 시작이며, 국민교육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중요한 사회공익사업이며, 또한 학전교육의 발전을 사회 여러 발전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국가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중국 교육부는 「첫 번째 학전교육 ‘3년 행동계획’(三年行動計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학전 교육에 대한 경비투입을 늘리고, 학전교육의 보편적 자원을 늘리며 대학 학전 교육 전공 교수진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각종 보장정책을 발표하여 학전 교육의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5)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6.23): 중국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바. 영국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⁶⁾

영국의 학제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지역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잉글랜드와 차별되는 자체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정부를 막론하고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무상보육 및 교육의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공식적인 학제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언어 실력 및 사회적 발달을 신장시켜 학교에서 더 나은 학습 및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부모들에게 시간적 융통성과 근무 능력을 고양시키며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본 기사에서는 영국의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 지역의 각 학령기 이전의 교육제도와 운영을 다루되, 최근의 동향의 경우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 지역의 기본이 되면서 근래에 이 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던 잉글랜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잉글랜드에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의무교육과정인 Key stage의 이전 단계인 ‘조기(Early years)’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만 4~5세의 유아는 한국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nursery school’에 다니는 ‘유치원(Reception)’ 과정으로 분류되고, 이 단계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취학 전 교육단계에 해당한다. 잉글랜드의 조기교육(Early years education)은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공립 교육기관인 공립유치원(stage nursery school)이나 초등학교의 유치원과정(nursery classes 또는 reception classes)이 있고, 비(比)공립교육기관인 자원봉사 유치원(voluntary pre-school)과 사립유치원(private nursery),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보육교사(childminder)가 있다.

잉글랜드 지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기교육 및 아동 보육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2000년에 취학 전 ‘기초단계(Foundational stage)’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02년에는 교육법(Education Act 2002) 개정을 통하여 이 단계가 잉글랜드 국가교육과정에 편입되게 된다. 이로써 취학 전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해당하는 현재 ‘조기(Early years)’로 불리는 단계가 정식으로 국가교육과정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후 ‘조기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al Stage, EYFS)’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 EYFS를 통해 출생에서부터 만 5세 미만 유아의 교육과 성장 및 보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보육등록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EYFS 개요(EYFS Profile)’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만 5세가 되는 시점에서 모든 유아의 발달과 학습성취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웨일스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의 교육과정과 학제를 따르고 있으나 자체적인 취학 전 ‘기초

6)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6.23): 영국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단계(Foundation Phase)’를 가지고 있다. 기초단계는 만 3세부터 7세까지 각 발달단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과정(holistic developmental curriculum)으로 운영된다. 기초단계의 법적인 시행은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2012년에 1차 시행이 완료되었다.

한편,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의 교육과정을 참고하고는 있으나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는 다른 자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기 운영에 있어서도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매년 9월에 첫 학기가 시작하는 반면, 북아일랜드는 매년 7월을 기점으로 신학기가 시작된다. 또한, 이곳의 학생들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보다 1년 빠른 만 4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Year 1)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북아일랜드는 ‘자치 정부의 운영 프로그램(Executive’s Programme for Government)’을 통해 원하는 모든 가족에게 취학 전 교육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학전 교육은 보통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1년을 말하며, 9월을 기점으로 만 3년 2개월에서 4년 2개월의 기간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취학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 1년의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운영 프로그램은 취학전 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모든 교육상황에서 양질의 취학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취학전 교육은 보통 유치원(pre-school)부터 시작되고, 만 3세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나 자원봉사 유치원 등을 다닐 수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받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조기교육을 ‘취학전전교육(Ante-pre-school education)’이라고 부르고, 이후 만 4~5세는 유치원(Nursery) 단계로 분류된다.

사. 독일의 유·초 연계 교육 현황⁷⁾

독일의 학령기 이전 교육은 만 3세 미만과 만 6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만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시설은 킨더크리페(Kinderkrippe)라고 하며 3세 이상부터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육시설은 유치원(Kindergarten)이라 하고, 이를 포괄하여 킨더타게스슈테테(Kindertagesstätte, 아동보육/교육기관)라고 명칭하고 있다.

1996년부터 독일에서는 3세 이상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는 유치원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1세 이상 3세 미만(U3) 자녀를 둔 부모도 킨더크리페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2013년 3세 이상 6세 미만 유치원 교육 참여 비율은 94.1%이고, 2014년 3세 미만 아동의 보육·교육 참여 비율은 서독지역 27.4%, 동독지역

7) 출처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6.23): 독일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52%로 나타났다. 취학 전 보육·교육시설에서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언어교육 또는 놀이나 체험을 통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직접적으로 교과와 관련된 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주 배경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에 따라 취학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유치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개설된 예비학교에 다니며 학교 교육에 필요한 언어교육을 받고 있다.

독일은 이주 배경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학교 교육의 시작과 학교 교육의 성공을 위해 취학 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학 전 보육·교육 확대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마련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보육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 사정에 따라 베를린주는 취학 3년 전부터 니더작센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 일부 주는 취학 1년 전부터 무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 요약 및 시사점

해외의 국가들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초 연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유·초 연계 교육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국가별 유·초 연계 교육 현황

국가	유·초 연계 교육 현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등 연계 정책 'P-3 접근법(PreK-3rd Approach)'을 통해 제도적 지원 P-3 접근법(PreK-3rd Approach) : 유아교육(만 3~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만 8세)까지의 유·초등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유·초등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획, 집행, 평가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구 단위에서 교육행정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각급 교육 기관의 교사, 학부모 연계 전국 단위의 교육연구소들이 유·초등 교육 연계를 위한 현황 조사, 통합교육과정 개발 등 노력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워크숍, 교사 전문성 개발 연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초 연결다리 프로그램(幼保小の架け橋プログラム) : 유치원·보육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각 개인의 발달상황을 파악하여 조기 지원 실시 유아교육 스타트 플랜(幼児教育スタートプラン) : 시설 종류에 상관없이 만 3~5세 대상 교육과정에 문부과학성의 유치원 교육요령 적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교와 초등학교가 전체 수업 일수, 수업 시간 동일, 동시에 시간표 개혁 진행, 방학을 포함한 학사 일정도 동일하게 진행 공립 유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교원을 배치, 교원들은 초등학교원으로 임용

국가	유·초 연계 교육 현황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시작 1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취학 전 교육(Pre-school)에 참여 • 최근 취학 전 교육(Pre-school)을 5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시범 제도 운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전반에서 초등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를 위해 5~6세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발달특징에 따라 각종 활동 실시, 일반적으로 1년제로 운영되나 3개월 혹은 6개월의 단기반으로 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글랜드 : 2000년에 취학 전 '기초단계(Foundation stage)'가 처음 도입, 취학 전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해당하는 현재 '조기(Early years)'로 불리는 단계가 정식으로 국가교육과정 안에 포함, 이후 2008년 9월부터 '조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시행, 'EYFS 개요(EYFS Profile)'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만 5세가 되는 시점에서 모든 유아의 발달과 학습성취도를 평가 • 북아일랜드 : '자치정부의 운영 프로그램(Executive's Programme for Government)'을 통해 원하는 모든 가족에게 취학 전 교육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할 것을 명시,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모든 교육상황에서 양질의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법 포함 • 스코틀랜드 : 취학 전 교육은 보통 유치원(pre-school)부터 시작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배경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에 따라 취학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유치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개설된 예비학교에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언어교육 실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치원 과정에서 초등학교 과정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에 준비 및 아동의 생활과 학습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유·초 연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초 연계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유·초 연계 교육에 관한 연구, 예비 프로그램이나 연계 교육과정 개발, 교육행정가의 리더십,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면담 조사 결과 및 분석

학생들의 입학 및 적응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생들의 입학, 초등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인식, 실태 및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가. 연구 방법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1학기 중반에 실시하였다.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일대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만 5세 반 유치원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FGI)은 초등학교 1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자료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면담록을 작성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허락한 경우 녹음을 한 뒤 전사문을 작성하였다. 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을 <표 13>과 같다.

<표 13>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에 대한 면담 내용

대 상	질문 내용
유치원생 (만 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형제·자매 유무 ■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다른 점 ■ 초등학교에 입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초등학생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의 생각이나 느낌 ■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다른 점

나. 면담 조사 결과 및 분석

1)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유치원생들의 인식

심층면담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대한 궁금증,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있어요. 엄마랑 누나가 그러는데 유치원은 공부를 안 하지만, 학교는 공부를 한 대요. 또 유치원에 와봤더니, 형님 누나들은 밥을 늦게 먹지만, 친구들이랑 저는 빨리 먹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에 가는 게 기대돼요. 특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C1]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대요. 유치원에서는 미술도 하고 놀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수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국어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서 걱정되는 건 따로 없어요. 어떤 걸 배우는지, 뭘 하는지 아직 몰라서요. [C8]

저는 집에 는 없는데 사촌 형이 초등학교에 다녀요. 주말마다 만나면 초등학교 이야기를 해주는데 초등학교에는 장난감이 없대요. 곱하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책은 재미있대요. 저는 초등학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친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지 다는 몰라서 걱정되는 건 없어요. [C3]

저는 집에 누나는 없고 형아만 있어요. 형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초등학교랑 유치원랑 뭐가 다른지, 뭐가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랑 놀고 싶어서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가서 달리기도 하고 싶고, 숙제도 하고 싶어요. 아직 초등학교에 가보지 않아서 걱정되는 건 없어요. [C10]

저는 오빠가 2명 있어요. 오빠들은 4학년,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랑 공부하는 게 다를 것 같고, 이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미술을 한다고 해서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고, 무지무지 궁금해요. 어떤 숙제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미술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걱정되는 건 없고,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얼른 초등학교에 가고 싶어요. [C11]

저는 동생이 한명 있어요. 초등학교는 예쁜 것 같아서 얼른 가고 싶어요. 걱정 되는 건 없고 가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어요. [C13]

저는 5살 동생만 있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랑 노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아요. 새로운 곳이라서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C14]

저는 4학년인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처럼 교실이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공부랑 숙제를 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C15]

저는 누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야기는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나가 숙제를 하는 걸 보면 어려워 보여서 걱정되기도 해요. 새로운 선생님이라서 물어보기 부끄러울 것 같아요. [C4]

저는 5학년인 누나가 있는데, 집에서 초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초등학교는 문제도 어렵고, 반도 많대요. 누나가 거실에서 공부하는 걸 보니까 진짜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과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실 찾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문제를 틀리는 것도 걱정돼요. [C6]

심층면담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유치원에 달리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놀이 시간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면을 듣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언니랑 오빠가 2명 있는데 6학년, 2학년이에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는 공부하고, 쉬는 시간이 10분 있어서 10분밖에 못 논대요. 저는 초등학교에 가는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하고, 집에도 혼자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곱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C2]

저희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형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는 공부 많이 하고, 글자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놀이시간은 적을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있는 누나가 알려줬어요. 초등학교에 가는 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오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운동장에 있는 더 큰 놀이터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건 없어요. 만약에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C5]

저는 동생만 있어요. 그리고 공부방도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초등학교에 가려면 다녀야 한다고 하셨어요. 초등학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운동장에서 놀 수 있어서 그건 좋을 것 같아요. [C7]

저는 형이나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초등학교랑 유치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면 뭘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서도 놀고 싶어요. 엄마가 공부도 많이 하고, 시험도 많이 친다고 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C9]

저는 동생만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는 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술도 하고, 과학도 하고, 축구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떤 오빠가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치고, 과학을 하다가 불이 나기도 해서 그건 걱정돼요. 집에서 유튜브로 맨날 초등학교 나오는 것 봐요. [C12]

1)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심층면담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교실 환경을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유치원 때는 놀이 공간이 역할 영역, 만들기 영역 같은 게 나누어져 있어서 좋았어요. 초등학교는 놀이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에도 놀이 공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좋아요. [E3]

어린이집에서는 어디서 노는 지 정해져 있어서 뛰어놀 사람은 어디서 가서 뛰어놀고, 인형 놀이할 사람은 인형 놀이 코너가 있어서 좋았어요. [E6]

유치원 때는 놀잇감이 많았는데 초등학교는 놀잇감이 적어져서 안 좋았어요. [E11]

초등학교는 교실이 커서 좋았어요. 유치원에는 도서실이 없었는데 초등학교에는 도서실이 있어서 좋았어요. [E13]

유치원은 놀이하는 곳이랑 공부하는 곳이랑 나누어져 있었고, 놀이 구역이 인형 놀이, 쌓기 놀이 같이 여러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좋았어요. [E7]

초등학교도 놀잇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E14]

심층면담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 또는 활동 시간을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초등학교 놀이 시간이 유치원처럼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E1]

유치원에서는 놀이 시간이 길어서 놀이 시간에 놀거나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색종이 접기, 만
들기를 하고, 친구 작품을 보기도 할 수도 있어서 좋았어요. [E2]

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이 너무 짧고, 운동장에 나가 노는 시간이 적어 아쉬워요. [E2]

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아쉬워요. [E14]

초등학교도 바깥 놀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쉬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많이 했으
면 좋겠어요. [E15]

심층면담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 또는 활동 내용을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때는 소풍도 가고, 강당에서 놀이 활동도 하고,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바깥놀이도 많
이 해서 좋았는데 초등학교는 달라서 안 좋았어요. [E1]

유치원 때도 국어랑 수학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에 와서 쉽게 하려고요. 초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니까 힘들었어요. [E4]

유치원 때가 놀이 활동도 더 많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E8]

유치원 때는 강당에서 체육도 하고, 동물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을 안 해
서 아쉬워요. [E9]

초등학교는 공부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수학이 어렵고, 글씨 쓰기가 많아져서 힘들어
요. [E10]

2.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만 시행되었고, 분기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자 구분을 위한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응답자 인적 사항,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 방안,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실제적 측면의 연계 방안,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은 경상북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 교사이며, 202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조사 사이트인 유레카를 통하여 결과가 집계되었다. 결과 분석의 과정에서 별도의 교차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영역 내 일반 설문 문항들에 대한 빈도 분석이 끝난 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가. 인적 사항

설문조사 문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무 기관, 교직 경력, 병설 유치원 유무,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등의 인적 사항이 다른 설문 문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묻는 문항을 설문조사의 서두에 배치하였다.

1) 응답자 근무 기관

경상북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응답 인원은 총 659명이었다. 그중 초등학교 교사는 401명(60.85%), 유치원 교사는 258명(39.15%)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중 공립유치원은 203명(30.80%), 사립유치원은 55명(8.35%)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14> 근무 기관 응답 현황

(N=659)

[문항1] 선생님의 근무 기관은?		
1	공립유치원	203명(30.80%)
2	사립유치원	55명(8.35%)
3	초등학교	401명(60.85%)

2) 근무 기관에 따른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교차분석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1]와 [문항6]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185.74$,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0명(59.1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0명(72.7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53명(88.0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15> 참조).

따라서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빈도(%)		전체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한 경험		
	있음	없음	
공립유치원	120 (59.11)	83 (40.89)	203 (100)
사립유치원	40 (72.73)	15 (27.27)	55 (100)
초등학교	48 (11.97)	353 (88.03)	401 (100)
$\chi^2(p)$	185.74(0.000)***		

$p^* < 0.05$, $p^{**} < 0.01$, $p^{***} < 0.001$

3) 병설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협력하여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교사는 82.29%, 유치원 교사는 69.38%로 응답자 가운데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또는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고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6> 병설 유치원 근무 여부 응답 현황

(N=258)

[문항2]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입니까?		
1	예	179명(69.38%)
2	아니오	79명(30.62%)

<표 17>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 응답 현황

(N=400)

[문항3]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까?		
1	예	330명(82.29%)
2	아니오	70명(17.45%)

4) 병설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에 따른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교차분석

병설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와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2], [문항3]와 [문항6]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2]와 [문항6]은 $\chi^2 = 108.97$, $p = 0.000$ 으로 나타났고, [문항3]와 [문항6]은 $\chi^2 = 108.33$,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병설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와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1명(62.0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5명(62.5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90명(87.8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병설 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명(88.57%)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18〉 참조).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는 경우,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등학교 교사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여도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병설 유치원 또는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근무 여부와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빈도(%)		전체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한 경험		
		있음	없음	
병설 유치원에 근무	예	111 (62.01)	68 (37.99)	179 (100)
	아니오	9 (37.50)	15 (62.50)	24 (100)
$\chi^2(p)$		108.98(0.000)***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	예	40 (12.12)	290 (87.88)	330 (100)
	아니오	8 (11.43)	62 (88.57)	70 (100)
$\chi^2(p)$		108.33(0.000)***		

p* < 0.05, p** < 0.01, p*** < 0.001

5) 응답자 교직 경력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교직 경력은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편이긴 하나 교직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사가 227명으로 모집단의 34.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9> 교직 경력 응답 현황 (N=659)

[문항4]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1	5년 미만	101명(15.33%)
2	5년 이상 ~ 10년 미만	126명(19.12%)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16명(17.60%)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89명(13.51%)
5	20년 이상	227명(34.45%)

6) 응답자 교직 경력에 따른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교차분석

교직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의 연관성을 알아보기로자 [문항4]와 [문항6]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10.11$, $p = 0.039$ 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 기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교직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교직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9명(68.32%), 교직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9명(62.70%),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0명(77.59%), 교직 경력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3명(59.55%), 교직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60명(70.4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20> 참조).

따라서 모든 교직 경력의 범위에서 일관적으로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0> 교직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빈도(%)		전체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한 경험		
	있음	없음	
5년 미만	32 (31.68)	69 (68.32)	101 (1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37.30)	79 (62.70)	126 (100)
10년 이상~15년 미만	26 (22.41)	90 (77.59)	116 (100)
15년 이상~20년 미만	36 (40.45)	53 (59.55)	89 (100)
20년 이상	67 (29.52)	160 (70.48)	227 (100)
$\chi^2(p)$	10.11(0.039)*		

p* < 0.05, p** < 0.01, p*** < 0.001

7)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이 있다는 교사가 534명으로 모집단의 81.03%를 차지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에 응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 응답 현황 (N=659)

[문항5] 교직 경력 중에 유치원 만 5세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이 있습니까?		
1	예	534명(81.03%)
2	아니오	125명(18.97%)

8)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에 따른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교차분석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문항5]와 [문항6]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57.45$,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 만 5세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이 있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30명(61.8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유치원 만 5세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이 없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21명(96.8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22> 참조).

따라서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과 무관하게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였을 때,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하지 않은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과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빈도(%)		전체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한 경험 있음	없음	
유치원 만 5세 반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경력	예	204 (38.20)	330 (61.80)	534 (100)
	아니오	4 (3.20)	121 (96.80)	125 (100)
$\chi^2(p)$		57.45(0.000)***		

$p^* < 0.05$, $p^{**} < 0.01$, $p^{***} < 0.001$

9)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유치원 만 5세 학급과 초등학교 1학년의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한 경험이 없다는 교사가 451명으로 모집단의 68.4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생각하는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23>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 응답 현황

(N=659)

[문항6] 유치원 만 5세 학급과 초등학교 1학년의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08명(31.56%)
2	아니오	451명(68.44%)

나.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와 유치원 교육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1)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유·초 연계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 314명으로 모집단의 47.65%를 차지하였고,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586명으로 모집단의 88.92%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대부분이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응답 현황

(N=659)

[문항7]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기에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314명(47.65%)
2	대체로 필요하다.	272명(41.27%)
긍정적인 응답		586명(88.92%)
3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64명(9.71%)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명(1.37%)
부정적인 응답		73명(11.08%)

2)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에 따른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교차분석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알아보하고자 [문항6]와 [문항7]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54.84$,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41명(67.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없는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211명(46.7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25〉 참조).

따라서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진이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유·초 연계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유·초 연계에 대해 고려한 적 없었지만 연구자와의 면담, 수업 동영상 보기를 통해 유아교육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학기 말에 이르러서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표 25>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빈도(%)				전체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한 경험	예	141 (67.79)	61 (29.33)	5 (2.40)	1 (0.48)	208 (100)
	아니오	173 (38.36)	211 (46.78)	59 (13.08)	8 (1.77)	451 (100)
$\chi^2(p)$		54.84(0.000)***				

$p^* < 0.05$, $p^{**} < 0.01$, $p^{***} < 0.001$

3) 근무 기관에 따른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교차분석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을 알아보기와 [문항1]와 [문항7]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63.06$,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31명(64.5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초등학교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185명(46.1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26〉 참조).

따라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간의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근무 기관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빈도(%)				전체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공립유치원	131 (64.53)	69 (33.99)	3 (1.48)	0 (0.00)	203 (100)
사립유치원	35 (63.64)	18 (32.73)	2 (3.64)	0 (0.00)	55 (100)
초등학교	148 (36.91)	185 (46.13)	59 (14.71)	9 (2.24)	401 (100)
$\chi^2(p)$	63.06(0.000)***				

$p < 0.05$, $p^{**} < 0.01$, $p^{***} < 0.001$

4)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한 이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도움’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16명으로 모집단의 47.95%를 차지하였고, ‘아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지원’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16명으로 모집단의 32.78%를 차지하였다.

<표 27>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8]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지원	216명(32.78%)
2	아동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 도움	316명(47.95%)
3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49명(7.44%)
4	자원 교류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	0명(0.00%)
5	기타	4명(0.61%)
기타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너무 상반됨 ▶ 갑작스러운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미숙함과 부적응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환경의 차이가 커 연계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생활지도 영역(기본생활 습관의 연계성) 		

5) 유치원 교육의 영향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95명으로 모집단의 59.94%를 차지하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신장’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32명으로 모집단의 20.0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이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습적인 측면보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사회성 신장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 유치원 교육의 영향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9] 유치원 교육이 어떤 부분에서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읽기·쓰기 등의 기초학습 능력 습득	89명(13.51%)
2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신장	132명(20.03%)
3	올바른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	395명(59.94%)
4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39명(5.92%)
5	기타	4명(0.61%)

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 방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실제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한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낮았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현행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교육대상의 범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등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현행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박현수(2021)에 따르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타난 구성 체계가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두 교육과정 모두 공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이다. 교육 구성원이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누리과정에 나타난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인간상의 내용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모두 유아와 아동, 즉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하였고, 누리과정의 목적과 초등학교 교육의 총괄 목표 모두 바른 인성 함양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9 개정 이전 누리과정보다 연계성을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 내용과 2015 개정 초등학교 1-2학년군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 정도는 아직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구성원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아교육자와 초등교육자가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도 현행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및 목표, 교육과정 편제, 교육내용의 연계성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401명(60.85%), 401명(60.85%), 394명(59.79%), 364명(55.24%), 367명(55.6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초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을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낮은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유·초 연계 교육이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과 실제적 교육활동에서 운영되는 실천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요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 29> 현행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0] 현행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본 방향	35명 (5.31%)	83명 (12.59%)	401명 (60.85%)	140명 (21.24%)
2	추구하는 인간상	34명 (5.16%)	47명 (7.13%)	401명 (60.85%)	177명 (26.86%)
3	구성 방침 및 목표	36명 (5.46%)	73명 (11.08%)	394명 (59.79%)	156명 (23.67%)
4	교육과정 편제	49명 (7.44%)	150명 (22.76%)	364명 (55.24%)	96명 (14.57%)
5	교육내용	42명 (6.37%)	151명 (22.91%)	367명 (55.69%)	99명 (15.02%)

2)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09명(4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사가 586명으로 모집단의 88.92%를 차지했다. 따라서 유·초 연계 교육이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과 실제적 교육활동에서 운영되는 실천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0>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1]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77명(42.03%)
2	대체로 필요하다	309명(46.89%)
긍정적인 응답		586명(88.92%)
3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62명(9.41%)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명(1.67%)
부정적인 응답		73명(11.08%)

3) 근무 기관에 따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교차분석

근무 기관과 유·초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1]와 [문항11]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53.41$,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근무 기관과 유·초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은 유·초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123명(60.5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사립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27명(47.09%), 206명(51.37%)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31〉 참조). 따라서 근무 기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 근무 기관과 유·초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				전체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공립유치원	123 (60.59)	76 (37.44)	4 (1.97)	0 (0.00)	203 (100)
사립유치원	22 (40.00)	27 (49.09)	5 (9.09)	1 (1.82)	55 (100)
초등학교	132 (32.92)	206 (51.37)	53 (13.22)	10 (2.49)	401 (100)
$\chi^2(p)$	53.41(0.000)***				

$p^* < 0.05$, $p^{**} < 0.01$, $p^{***} < 0.001$

4)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에 대해 ‘만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60명으로 69.80%를 차지하였다.

<표 32>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2]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교육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만 4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50명(7.59%)
2	만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116명(17.60%)
3	만 4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33명(5.01%)
4	만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460명(69.80%)

5)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교육 기관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교육 기관에 대해 ‘1학기에는 유치원, 2학기에는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이라는 응답한 교사가 235명(35.66%)으로 가장 많았다.

학기별로 다른 교육 기관이 운영의 중심이 된다면 1학기에는 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초등학교생들의 입학 적응을 돕고, 2학기에는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유치원생들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교육 기관이 운영의 중심이 된다면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여러 유치원과 협력하여 운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표 33>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3]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함께 운영한다면 어느 교육 기관이 중심이 운영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운영	163명(24.73%)
2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유치원과 협력하여 운영	220명(33.38%)
3	1학기에는 초등학교, 2학기에는 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	41명(6.22%)
4	1학기에는 유치원, 2학기에는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	235명(35.66%)

6)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만 배당하여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28명(34.6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고르게 배당하여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00명(30.35%)으로 많았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만 배당하여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입학 적응 활동 시간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고르게 배당하여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에서도 유·초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표 34>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4]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교육과정을 수업 일수에 포함하여 운영한다면 초등학교의 편제 및 시간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학교 교과(국어, 수학, 통합) 시수에서만 배당하여 운영	45명(6.83%)
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만 배당하여 운영	228명(34.60%)
3	초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고르게 배당하여 운영	200명(30.35%)
4	초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고르게 배당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집중적으로 배당하여 운영	186명(28.22%)

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실제적 측면의 연계 방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교육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과 실행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1)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288명(43.70%), 310명(47.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363명(55.08%), 389명(59.03%)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성보다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5]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에서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수·학습 방법	75명 (11.38%)	288명 (43.70%)	251명 (38.09%)	45명 (6.83%)
2	교육 평가	79명 (11.99%)	310명 (47.04%)	230명 (34.90%)	40명 (6.07%)

2)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에 대해 ‘교육환경, 교수 방법 등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운영 실제 상의 차이로 인해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318명(48.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연계 필요성 인식 및 상호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165명(25.04%)으로 많았다.

김정숙 외(2015)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누리과정의 이해정도가 낮았으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와 자유 선택 활동의 실제적인 실행 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초등학교에 비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5세 교사는 양육자(보호자),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교수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유아 및 유아 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 중 화장실(변기), 책걸상 등의 시설·설비가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1학년 유아가 또래와 활동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교구와 놀잇감 및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원호(2019)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아동의 실생활과 발달 특성, 유·초 연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보았으나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교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했으며 아동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된 교실 공간, 유휴 교실을 활용한 환경구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비 등을 요구했다.

<표 36>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6]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 교육이 어렵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문서상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53명(8.04%)
2	교사의 연계 필요성 인식 및 상호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165명(25.04%)
3	문서상의 연계는 되어 있으나 교사의 수업이 문서상의 커리큘럼과 차이가 나서	47명(7.13%)
4	교육환경, 교수 방법 등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운영 실제 상의 차이로 인해서	318명(48.25%)
5	누리과정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적 문제 때문에	59명(8.95%)
6	기타	17명(2.58%)
기타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음 ▶ 유치원, 초등학교 간의 교류가 부족함 		

3)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 제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19명(48.4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사들의 연계 교육 필요성 인식과 실천 의지’라고 응답한 교사가 164명(24.89%)으로 많았다.

강주희(2013)에 따르면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정책 강화 방안으로 국가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담당부처 일원화와 교육과정 전달체계 구축과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의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는 일원화를 통하여 교육 노하우와 서비스를 제공, 교육청은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모든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신유진(2014)에 따르면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하여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현장에서의 유·초 연계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의 유·초 연계 교육의 실태는 교육내용 측면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양 교육 기관의 인적, 물리적 프로그램 상의 연계 협력 및 연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지숙(2012)에 따르면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는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관에서는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17]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사들의 연계 교육 필요성 인식과 실천 의지	164명(24.89%)
2	학교 관리자의 연계 교육 필요성 인식과 지원 의지	48명(7.28%)
3	인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06명(16.08%)
4	유·초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 제공	319명(48.41%)
5	기타	22명(3.34%)

마.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1)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목적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목적에 대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돕기 위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273명(41.4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단절과 비약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228명(34.60%)으로 많았다.

<표 38>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목적

(N=659)

[문항18]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돕기 위해	273명(41.43%)
2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단절과 비약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228명(34.60%)
3	인지적·사회적 발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9명(22.61%)
4	학교 간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7명(1.06%)
5	기타	2명(0.30%)

2)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법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연계’라고 응답한 교사가 324명(49.1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라고 응답한 교사가 124명(18.82%)으로 많았다.

<표 39>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법

(N=659)

[문항19]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	114명(17.30%)
2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연계	324명(49.17%)
3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 연계	97명(14.72%)
4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124명(18.82%)

3) 교육과정 문서상 연계 방법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3명(46.4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7명(41.23%)으로 많았다.

<표 40> 교육과정 문서상 연계 방법에 대한 응답 현황 (N=114)

[문항20]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 교육과정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	47명(41.22 %)
2	교육과정 문서상 교과 및 내용 명칭 최대한 통일	10명(8.77 %)
3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53명(46.49 %)
4	인접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지원	2명(1.75 %)
5	기타	2명(1.75 %)

4)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초 연계를 위한 공통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07명(33.0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치원에서 입학 준비 활동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01명(31.17%)으로 많았다.

<표 41>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한 응답 현황 (N=324)

[문항21]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학교에 블록타임제 적용	8명(2.47%)
2	초등학교에서 놀이 수업 운영	71명(21.91%)
3	유치원에서 입학 준비 활동 운영	101명(31.17%)
4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간의 교류 활성화	37명(11.42%)
5	유·초 연계를 위한 공통의 프로그램 운영	107명(33.02%)

5) 근무 기관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 교차분석

근무 기관과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1]와 [문항21]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 = 66.30$, $p = 0.000$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근무 기관과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초 연계를 위한 공통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각각 53명(59.55%), 12명(4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초등학교 교사는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치원에서 입학 준비 활동 운영’이라는 응답이 91명(44.3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32〉 참조). 따라서 근무 기관에 따라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근무 기관과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 간의 연관성 (N=659)

구분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					전체
	초등학교 블록타임제	초등학교 놀이수업	유치원 입학준비활동	학생들 간 교류 활성화	공통의 프로그램	
공립유치원	2 (2.24)	17 (19.10)	4 (4.49)	13 (14.60)	53 (59.55)	89 (100)
사립유치원	0 (0)	7 (23.33)	6 (20)	5 (16.66)	12 (40)	30 (100)
초등학교	6 (2.92)	47 (22.92)	91 (44.39)	19 (9.26)	42 (20.48)	205 (100)
$\chi^2(p)$	66.30(0.000)***					

$p < 0.05$, $p^{**} < 0.01$, $p^{***} < 0.001$

6)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 방법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전·후 유사한 학습 공간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7명(38.14%)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초 연계와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제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6명(26.80%)으로 많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의 세부 과제 중에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이 제시되었는데 유·초 연계를 위한 교실 공간 혁신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43>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 방법에 대한 응답 현황

(N=97)

[문항22]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초등학교에 다양한 놀이 교구 지원	12명(12.37%)
2	초등학교에 다양한 놀이 공간 마련	22명(22.68%)
3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전·후 유사한 학습 공간 마련	37명(38.14%)
4	유·초 연계와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제공	26명(26.80%)
5	기타	0명(0.00%)

7)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라고 응답한 교사가 51명(41.1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인근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협의’라고 응답한 교사가 29명(23.38%),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공동 연수 실시’라고 응답한 교사가 28명(22.58%)으로 많았다.

미국의 경우, 유치원이 공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간 연계가 교사 단위에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과정 협의, 공동 연수 실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4>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N=124)

[문항23]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공동 연수 실시	28명(22.58%)
2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상호 방문 및 수업 참관	15명(12.09%)
3	인근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협의	29명(23.38%)
4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51명(41.12%)
5	기타	1명(0.80%)

8)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인식 및 필요성,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 교사 상호 간 교류, 연계 지원 측면으로 분류하여 보면 <표 45>와 같다.

<표 45>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응답 현황

구분	응답 내용
인식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전환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상호 이해 유·초 전이를 경험하는 유아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공감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리과정과 교과과정을 통합 또는 초등학교는 1학기, 유치원에서는 2학기에 유·초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확립 교사 간의 교류와 협의를 통한 공동교육과정 개발 만 5세 교육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일관적, 체계적 운영 유치원 초등교사 공동 연구팀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 유치원 교육내용이 어느 부분이 초등교육과 연계되는지 표시 및 명칭의 통일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프로그램 참여 및 수업 참관 같은 주제의 수업 운영 및 형님, 동생 인사 영상 나누기 등의 교류 유아들이 지역 내 초등학교 견학을 통한 환경 탐색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동 활동 운영 아동의 성장 발달상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며 생활지도에 연계하여 지도 유치원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실을 방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기획 1학년 놀이 중심 수업과 연계 유치원 졸업반 학생들의 2학기 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처럼 운영 유치원 학생의 초등예비학교 운영 입학 전 학교 교실에 적응하고 생활해보는 기간 운영 유치원 놀이 시간에 1학년이 함께 참여 또는 1학년 체육활동에 유아 참여 유·초 상호 방문의 날 운영 초등학교 교과서와 교육과정 맞보기 활동 운영 공통의 배움 내용을 추출해서 인성 덕목 또는 기본생활습관을 중심으로 함께 놀아보기, 서로 도와주기 등의 활동을 프로젝트 수업 운영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에 유치원과 비슷한 환경의 학습 공간 마련 하나의 주제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 공동 놀이 공간 구성 및 교재 교구 활용, 교수학습 방법의 공유 유·초 연계를 위한 자료 개발
교사 상호 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에서의 수업이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많은 교류와 협력 유치원 교사와 초등교사와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초등교사 학습동아리 및 연수(발도르프 연수 등)에 유치원 교사가 참여 새 학기 준비 기간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 1학년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 간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고 연계 교육이 필요한 과목 및 활동 공유

구분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지속된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교사 및 학습자의 소통 기회 마련 • 지속적인 수업사례 나눔과 상호 방문 놀이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 주도적인 교류 활동 • 간담회 방식을 통해 상호 간 협력방안을 모색 •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멘토 형성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교육과정 지침 마련 후 연구학교 등을 통한 사례 발굴 • 상호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 실시 • 일회적인 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 • 교육청에서 모형 및 자료집 제작, 현장에 예산 지원 • 상호 교육과정의 이해 및 연계를 위한 학교 자율 연수 실시 •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우선적인 시범 운영 • 학부모 컨설팅을 통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 유치원·초등 교사간의 객관적인 학생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 마련 • 선도 교사들의 연구 사례 필요 • 유·초 연계 담당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 교육과정 지침서와 같이 동일한 지도안 및 교육활동 개발 및 배포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발굴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인원수 축소 • 만 5세 반과 초등 1학년 담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 우선 선발 배정 및 연임 • 유치원을 공교육화하여 유아 학교로 전환 •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방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및 교재·교구, 교사 상호 간 교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의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55명(53.87%)으로 가장 많았고,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이 있는 교사가 555명으로 모집단의 84.22%를 차지했다.

<표 46>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25]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00명(30.35%)
2	대체로 그렇다	355명(53.87%)
긍정적인 응답		555명(84.22%)
3	거의 그렇지 않다	77명(11.68%)
4	전혀 그렇지 않다	27명(4.10%)
부정적인 응답		104명(15.78%)

2)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내용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내용에 대해 '상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55명(38.6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12명(32.17%)으로 많았다.

<표 47>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내용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26]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212명(32.17%)
2	상호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120명(18.21%)
3	상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	255명(38.69%)
4	상호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69명(10.47%)
5	기타	3명(0.46%)

3)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13명(47.50%)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592명으로 모집단의 89.84%를 차지했다.

<표 48>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27] 학부모(학생 가족)를 대상으로 유·초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79명(42.34%)
2	대체로 그렇다	313명(47.50%)
긍정적인 응답		592명(89.84%)
3	거의 그렇지 않다	54명(8.19%)
4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1.97%)
부정적인 응답		67명(10.16%)

4)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내용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 내용에 대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간 교육내용 및 방법의 차이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333명(50.5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학생의 행동 특성과 발달단계별 적절한 지원에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239명(36.27%)으로 많았다.

<표 49>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 내용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28]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생의 행동 특성과 발달단계별 적절한 지원에 대한 이해	239명(36.27%)
2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간 교육내용 및 방법의 차이 대한 이해	333명(50.53%)
3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간 평가 방식의 차이와 학부모 지원에 대한 이해	57명(8.65%)
4	무리한 선행학습에 대한 부작용 이해	28명(4.25%)
5	기타	2명(0.30%)

5)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00명(30.3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발굴 지원’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66명(25.19%)으로 많았다.

<표 50>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29]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200명(30.35%)
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발굴 지원	166명(25.19%)
3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150명(22.76%)
4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47명(7.13%)
5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35명(5.31%)
6	유·초 전환기 예비 학부모 교육 지원	56명(8.50%)
7	기타	5명(0.76%)
기타 응답 내용		
▶ 현장의 어려움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		

6)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72명(56.4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연합 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04명(15.78%)으로 많았다.

<표 5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한 응답 현황 (N=659)

[문항30]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372명(56.45%)
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확대	80명(12.14%)
3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연합 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4명(15.78%)
4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91명(13.81%)
5	기타	12명(1.82%)
기타 응답 내용		
▶ 연계 교육을 준비 및 실행할 시간 확보(업무 경감)		

IV.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이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원의 조직, 유아와 학생의 실태,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교육여건과 환경을 반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연계 교육과정의 기준을 토대로 편성·운영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가.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가정, 교육 기관,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참여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셋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각 교육 기관의 실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편성·운영할 수 있다.

넷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편성·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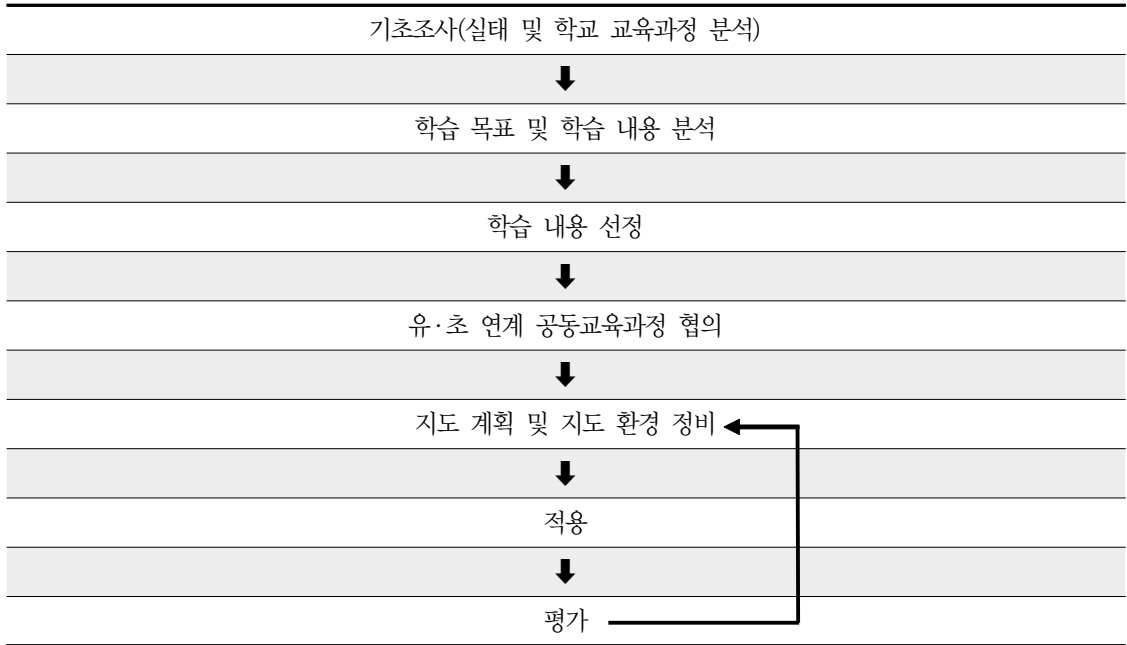
다섯째, 교사 상호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편성 절차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시 반영할 내용으로는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간의 거리와 전체 및 학년별 학생 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참여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 현황과 지역문화와 체험학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김해운, 2009).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별 실태 및 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반영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장 경영 철학, 학교 교육 목표, 구현 중점사업 등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한다.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공동 교육활동 요소를 선정하고,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한다. 넷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의를 거쳐 학년별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환경을 정비하여 적용한다. 이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협의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어려운 경우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시안을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을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서로 반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적용과정에서 계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환류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절차

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연계 교육과정의 기준을 토대로 편성·운영한 교육과정을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모형을 다음과 같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모형은 협력의 방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적극적인 협력 방식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공동의 교육활동 요소를 선정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협력 방식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과 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상호 교육과정을 공유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모형이다.

가. 상호 협의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

경상북도 학교 현황(2021.4.1. 기준)을 보면, 도내 초등학교는 473개, 유치원은 696개, 그 중 병설 유치원은 453개로 확인되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고, 학사 일정을 공유하고 있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상호 협의가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유치원 만 5세 반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의체(T/F팀)를 구성하고, 새 학년 시작되기 전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유치원 만 5세 반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장 경영 철학, 학교 교육 목표, 구현 중점사업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동 교육활동 요소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선정된 교육활동 요소에 따라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볼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학기는 초등학생들의 입학 적응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2학기는 유치원생들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해 유치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놀이 학기제와 연계하여 입학 적응 활동을 운영해 볼 수 있다. 만약 상호 협의 과정에서 유아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였을 때, 교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어, 수학, 통합 교과와 연계하여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학기에는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생활주제 ‘학교를 가요’와 연계하여 입학 준비 활동을 운영해 볼 수 있다. 만약 상호 협의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유아들의 사회성 또는 자립심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지도 면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여 지도할 수 있다.

2) 상호 방문 또는 수업 참관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실 환경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수업을 참관하며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수·학습 방법과 교실 환경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할 수 있다. 반대로 학년이 끝나기 전인 12월 중에 유치원 교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하거나 수업을 참관하며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수·학습 방법과 교실 환경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할 수 있다.

3) 협력 수업 및 교육시설 또는 기자재 공유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협력 수업을 계획 및 운영하거나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을 공유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초 연계를 위한 공통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상호 팀티칭의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체험학습 또는 학예회 같은 공통의 행사 활동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교육시설 또는 학습 및 놀이 교구 등 기자재의 공유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나. 상호 공유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상호 협의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과 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상호 교육과정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공유한 내용을 반영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유치원 만 5세 반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새 학년 시작되기 전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과 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장 경영 철학, 학교 교육 목표, 구현 중점사업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상호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유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 교육활동 요소를 선정하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인근 유치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자료 보급 및 사례 공유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실 환경 연계

도교육청에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움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교수·학습 방법 및 교실 환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생들의 입학 준비를 돕고, 초등학생들의 입학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교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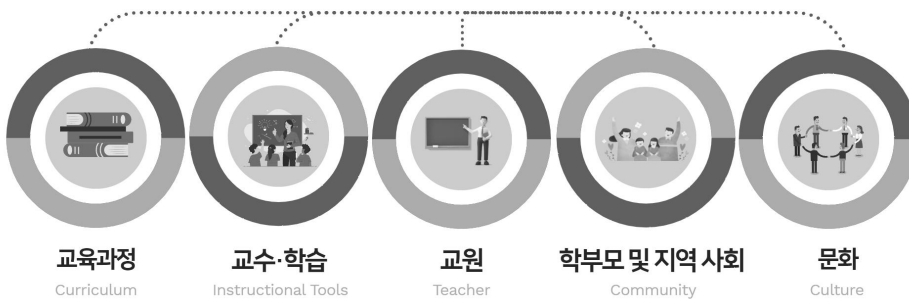
방법 및 교실 환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유·초 연계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유·초 연계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 등의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실 환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V. 정책적 지원 방안

본 연구에서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 및 해외의 유·초 연계의 동향 파악, 경북 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입학 적응에 대한 면담 조사와 유·초등 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유·초 연계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과 시사점 확인을 통한 정책과제 수립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정책 영역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문화로 구분하여 5가지 제시하고, 관련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그림3]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영역

<표 52>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영역 및 과제

영역	과제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 마련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연계 운영
학부모 및 지역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교육력 제고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공유 교사 상호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1. 정책 영역 : 교육과정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표 53> 교육과정 영역의 정책과제

구분	정책 과제
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유치원과의 연계 교육과정 내용 추가 - 2021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유·초 연계 유형 추가
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개발 및 보급 - 유·초 연계 공동수업, 유·초 연계 학교 확대 지원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 자료 개발 및 보급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 발굴 및 확산
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 -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관리지침」개정 및 보완 - 유·초 연계 통합운영학교 확대 지원 - 유·초 연계 통합운영학교 운영 사항 반영

가.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1) 주체 : 연구원, 도교육청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3명(46.49%)으로 가장 많았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72명(5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전·후 유사한 학습 공간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7명(38.14%)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도 유·초 연계를 포함한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내용이 <표 54>와 같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54>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보완)

제3장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사항

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해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가.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학교급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연계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6) 1학년 입학생이 유치원 학습 환경과의 차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실 내외 환경을 구성하는 등 유·초 교육이 연계성을 강화한다.

다. 학교는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5) 학교급 간의 연계를 위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에도 유-초 연계 학교를 위한 내용이 <표 55>와 같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55> 2021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계획(보완)

■ 운영 방침

- 공동 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 유-초 연계 학교, 초-중 연계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공동 수업 학교

- 인근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유-초 연계 학교

- 인근 소규모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교급 간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 공동 수업 운영
-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과 연계 체험활동 및 동아리 운영

나.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1) 주체 : 도교육청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경북교육청은 경북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9대 과제 중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총 3억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경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공동수업 21교, 도·농 상생 8교, 초·중 연계 16교, 원격 화상 수업 42학급이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급)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경북신문, 2021.06.17.).

따라서 유·초 연계 공동수업, 유·초 연계 학교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

1) 주체 : 도교육청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및 초·중, 중·고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초·중, 중·고, 초·중·고 간 통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유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초·중, 중·고, 초·중·고 통합학교가 병설 유치원까지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유·초·중 통합을 꾀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통합운영학교가 최근 인구 지형변화에 따라 대도시에서도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므로 앞으로 통합운영학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 등 제반 여건이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으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교육과정 통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정미경 외, 2021).

따라서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관리지침」개정 및 보완을 통해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병설학교나 통합운영학교가 실질적으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영역 : 교수·학습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표 56> 교수·학습 영역의 정책과제

구분	정책 과제
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 자료 보급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유·초 연계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 선도학교 지정 -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과 연계 운영
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수업 참관 및 수업 나눔 활성화 -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이해 도모 -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공유 - 교육환경의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

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1) 주체 : 도교육청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교실 환경 및 교재·교구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초 연계와 관련된 교재 개발 및 제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6명(26.8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자료나 사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사례,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연구회 연구 결과, 학교에서의 실행 사례 등을 모아 안내자료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 제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19명(48.41%)으로 가장 많았다. 강주희(2013)에 따르면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정책 강화 방안으로 국가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담당부처 일원화와 교육과정 전달체계 구축과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의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아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는 일원화를 통하여 교육 노하우와 서비스를 제공, 교육청은 유·초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모든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

- 1) 주체 : 도교육청
-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발굴 지원’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66명(25.1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를 확대 지정하여 사례 학교를 늘려나가고, 병설학교와 유·초 연계 통합운영학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나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정책 사업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초 연계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도의 교육연구회 선발·지원 시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하는 연구회를 전략적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상호 수업 참관 및 수업 나눔 활성화

- 1) 주체 : 학교, 도교육청
-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박진이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유·초 연계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유·초 연계에 대해 고려한 적 없었지만 연구자와의 면담, 수업 동영상 보기를 통해 유아교육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학기 말에 이르러서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상호 학교급에 수업을 참관하고 나누면서 학습자,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등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발견하고,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정책 영역 : 교원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과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표 57> 교원 영역의 정책과제

구분	정책 과제
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개발 및 운영 -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역량 강화
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연계 운영 -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 지원

가.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개발 및 운영

1) 주체 : 도교육청, 연수원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55명(53.87%)으로 가장 많았고,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이 있는 교사가 555명으로 모집단의 84.2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지혜(2017)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실태와 개선 방향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교육과정 상의 근본적 차이,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 교사에 대한 교육 부족과 교사 인식의 미흡 등을 유·초 연계 교육의 방해요인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 및 시간 편성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 모색, 연계 교육을 위한 환경 개선, 상대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연수 강화, 연계를 위한 실제적 교사 연수와 교사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내용에 대해 ‘상호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이해’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55명(38.6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12명(32.17%)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원 연수를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연계 운영

- 1) 주체 : 학교, 도교육청
-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두레교사제: 농촌사회의 상호 협력 및 공동 노동의 형태에서 따온 용어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함)’를 전격 단행하였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목적으로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수업 내에서 담임교사와 협력해 지원하는 제도로 저학년 학습 부진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 수업에 1수업 2교사제 형태로 참여한다. 2021학년도 지원 인원은 57명이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내일뉴스, 2021.03.19.).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1, 2학년 전문 담임 및 협력교사제 운영하며 유·초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김은영 외(2017)는 초등 저학년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효과 분석하였으며 학교 적응 면에서 담임교사는 학습 부진 아동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과 발표가 많아지는 등 학습 태도가 좋아지고, 협력교사의 격려와 정서적 지원을 통해 불안감이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돕는 방안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정책 영역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표 58> 학부모 및 지역사회 영역의 정책과제

구분	정책 과제
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대상 연수 활용 - 학부모회 예산 운영 시 “예비 학부모 교육”사업 추진 -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전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반한 유·초 연계 교육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교육력 제고

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 1) 주체 : 학교, 도교육청
-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13명(47.50%)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592명으로 모집단의 89.84%를 차지했다.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학부모 연수 내용에 대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간 교육내용 및 방법의 차이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333명(50.5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학생의 행동 특성과 발달단계별 적절한 지원에 대한 이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239명(36.27%)으로 많았다.

경상북도교육청의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 학부모를 위한 연수 시기, 연수 내용 등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지원센터에서의 예비 학부모 교육 실태에 대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내용 및 방법의 차이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자녀의 행동 특성과 발달단계별 적절한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학교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학부모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학부모의 역량 강화 및 학교 지원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교육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사회 기반한 유·초 연계 교육시스템 마련

1) 주체 : 지자체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온정초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연계 경복형 공동 교육과정 숲사랑 체험학습을 봉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진행하는 등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일반학기에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 및 지원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마련하고 이 통로를 활용하여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 영역 : 문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문화와 관련된 정책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표 59> 문화 영역의 정책과제

구분	정책 과제
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사전 협의회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교 실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연계 -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공유
과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상호 공유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 자료 및 사례 공유를 통한 교수·학습 및 교육환경 연계 방안 마련
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공유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의 워크숍 개최 -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홍보자료 제작 및 배부
과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과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구회나 교사 동아리 지원

가. 교육과정 사전 협의회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1) 주체 : 교육부, 도교육청, 학교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09명(4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사가 586명으로 모집단의 88.92%를 차지했다. 따라서 유·초 연계 교육이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과 실제적 교육활동에서 운영되는 실천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특색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의 시간을 최소 한 학기 이전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고, T/F 팀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월에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유·초 연계 교육에 관한 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연계 교육활동 요소를 반영한 유·초 연계 프로그램, 공동수업, 공동의 체험활동이나 행사 운영 등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1) 주체 : 학교, 도교육청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협의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어려운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을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서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영덕 지품초병설유치원, 지품초, 지품중학교를 유·초·중 통합운영학교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앞으로 3년간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연계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는 온정초 등이 있으며 자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는 파천초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 및 자료들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하는 학교의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및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환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공유

1) 주체 : 도교육청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00명(30.35%)으로 가장 많았고,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해 ‘교사들의 연계 교육 필요성 인식과 실천 의지’라고 응답한 교사가 164명(24.8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신유진(2014)에 따르면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하여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현장에서의 유·초 연계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의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은 교육내용 측면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양 교육 기관의 인적, 물리적 프로그램 상의 연계 협력 및 연수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과 방향의 공유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대상 워크숍 개최 및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홍보 동영상 제작·배부 등이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유·초 연계 교육에 관한 철학과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간의 교육과정 협의회(T/F팀)를 활성화시키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 1) 주체 : 학교, 도교육청
-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라고 응답한 교사가 51명(41.12%)으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유·초 연계에 관심 있는 교원이나 만 5세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유·초 통합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하여 각 학교급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교직 문화를 조정, 통합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마.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구회나 교사 동아리 지원

- 1) 주체 : 학교, 도교육청
- 2) 필요성 및 추진 내용

교사들의 유·초 연계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연구회나 교사동아리 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연구회는 학교 단위, 지역 단위, 도 단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규모의 교육연구회를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함께 소통 및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험을 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현실 적합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위해 유·초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초연계 교육,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운영학교 운영,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등 여러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유·초연계 공동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는 첫째, 유·초연계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책들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유·초연계 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생의 인식 및 요구는 무엇인가? 셋째, 유·초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유·초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내용은 첫째, 유·초연계 교육의 최근 동향, 유·초연계 교육 연구 현황, 해외의 연계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여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유·초연계에 대한 교원의 인식, 실태, 저해 요인, 지원 요구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입학 적응에 대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셋째, 유·초연계 공동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편성 절차, 운영 중점, 기본 사항,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제시하였다. 넷째, 유·초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교육과정,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제도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교원 대상 설문조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심층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가. 선행연구 및 국내·외 현황 분석 결과

유·초연계 교육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유·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놀이를 통한 유·초연계 교육을 추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통합운영학교는 물리적 통합은 이루었지만 교육 내적인 의미에서 연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유·초연계 교육의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도 유·초연계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타시

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 대전, 서울, 충북, 강원도, 경남교육청 등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유·초 연계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은 ‘P-3 접근법(PreK-3rd Approach)’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과 영국 등은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높아졌으며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은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은 단순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과정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나. 인식 및 요구 조사 결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심층 면담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대상 심층 면담 분석 결과,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면을 듣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대상 심층 면담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교육환경,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차이를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는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치원생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초등학생들의 입학 적응을 위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육환경,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에서 유·초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초 연계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계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한 경험이 없다는 교사가 451명으로 모집단의 68.44%를 차지하였고, 유치원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가 유·초 연계 교육 계획 및 실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586명으로 모집단의 88.92%를 차지하였고, 유치원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가 유·초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도움’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16명으로 모집단의 47.95%를 차지하였고, 유치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95명으로 모집단의 59.94%를 차지하였다.

셋째,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 방안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도 현행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및 목표, 교육과정 편제, 교육내용의 연계성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각각 401명(60.85%), 401명(60.85%), 394명(59.79%), 364명(55.24%), 367명(55.69%)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09명(4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사가 586명으로 모집단의 88.92%를 차지했다. 또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에 대해 ‘만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60명으로 69.80%를 차지하였고,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교육 기관에 대해 ‘1학기에는 유치원, 2학기에는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이라는 응답한 교사가 235명(3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초 연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만 배당하여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28명(34.60%)으로 가장 많았다.

넷째,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 실제적 측면의 연계 방안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측면의 연계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288명(43.70%), 310명(47.04%)으로 가장 많았고,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에 대해 ‘교육환경, 교수 방법 등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운영 실제 상의 차이로 인해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318명(4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에 대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 제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19명(48.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섯째,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의 목적에 대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을 돕기 위해’라고 응답한 교사가 273명(41.43%)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연계’라고 응답한 교사가 324명(4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적 측면의 연계 방법에 대해 ‘유·초 연계를 위한 공통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07명(33.02%)으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분석한 결과,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 참여 의향이 있는 교사가 555명으로 모집단의 84.22%를 차지하였고, 학부모 대상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592명으로 모집단의 89.84%를 차지하였으며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00명(30.3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발굴 지원’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66명(25.19%)으로 많았다. 또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72명(56.45%)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심층 면담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치원과 초등교사 대부분 유·초 연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계획 및 실행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상호 간 협력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개개인이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보다 유치원과 초등교사가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초 연계 교육의 저해 요인은 교육환경, 교수 방법 등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운영 실제 상의 차이로 나타났고 유·초 연계 교육의 실행 방안으로 유·초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으로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초 연계를 위한 공통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 연계를 위해 공통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방안과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발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계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교원의 관심, 교원과 학부모의 연수 기회, 교사 상호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모형 및 사례 개발 및 보급,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행·재정적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이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이와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원의 조직, 유아와 학생의 실태, 학부모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교육여건과 환경을 반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연계 교육과정의 기준을 토대로 편성·운영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돕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가정, 교육 기관,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참여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셋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각 교육 기관의 실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편성·운영할 수 있다. 넷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편성·운영한다. 다섯째, 교사 상호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별 실태 및 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반영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태를 분석하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장 경영 철학, 학교 교육 목표, 구현 중점사업 등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한다.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공동 교육활동 요소를 선정하고,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한다. 넷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의를 거쳐 학년별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환경을 정비하여 적용한다. 이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협의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어려운 경우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시안을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을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서로 반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적용과정에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환류한다.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협력의 방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협력 방식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공동의 교육활동 요소를 선정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는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협력 방식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도교육청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침과 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상호 교육과정을 공유하여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모형이다.

라. 정책적 지원 방안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정책 영역을 교육과정,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자원, 제도로 구분하여 5가지 제시하고, 관련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첫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둘째,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개발 및 보급, 셋째,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이 있다.

교수·학습과 관련된 정책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둘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굴 시스템 구축, 셋째, 상호 수업 참관 및 수업 나눔 활성화가 있다.

교원과 관련된 정책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첫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개발 및 운영, 둘째,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연계 운영이 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책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둘째, 지역사회 기반한 유·초 연계 교육시스템 마련이 있다.

문화와 관련된 정책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첫째, 교육과정 사전 협의회를 통한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둘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셋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공유, 넷째,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 다섯째,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구회나 교사 동아리 지원이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유·초 연계 교육의 실태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측면의 연계 방안과 교육활동 실제적 측면의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유·초 연계 교육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지원 방안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통합운영학교 또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과도 연관되어 있으나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로 한정하여 실시하였고, 심층 면담의 대상자를 소수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기대, 요구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유·초 및 초·중, 중·고 연계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고, 최근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경북에서도 현재 개교 예정 포함하여 16개의 통합운영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유·초 연계를 포함한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북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 경험 확대를 위해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형으로 공동수업 학교, 도·농 상생 학교, 초·중 연계 학교, 원격 화상 수업 학급 총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유·초 연계를 포함한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Ⅱ 참고문헌 Ⅱ

- 강주희(2013), 유·초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인식 분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진, 장원호(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연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351-377.
- 김순녀(2010),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교육 활동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신민경(2017), 초등 저학년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효과 분석, 한국 아동교육학회, 43-64.
- 김정숙, 장혜진(2015),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현황과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창복(2007),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 301-316.
- 김창복, 이신영(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고찰, 한국초등교육, 245-265.
- 김해운(2009), 인접 소규모초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영희(2007), 통합교육과정과 유·초 연계교육, 교원교육, 279-300
- 문혜련(2009), 만 4~5세 유치원생 어머니들의 유아사회교육에 대한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009-1020.
- 박선옥(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구지역 초·중통합운영학교 운영 방안 연구 :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영(2019),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계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이순아(2018),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연구의 동향 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27-47.
- 박진이, 이정옥(2018), 수업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가지는 유초 연계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35-60.
- 박현수(2021),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숙(2012), 유·초 교육과정 연계 및 초등학교로의 전이프로그램에 대한 만5세반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진(2014),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안소영, 안지혜(2018), 유아교육기관·초등학교 연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교육비평*, 5-23.
- ▶ 양지애, 이정욱(2018), 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초연계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43-169.
- ▶ 엄지숙(1999), 유아들의 경험을 통해 본 유치원에서 1학년의로의 전이, *한국영유아보육학제17집*, 405-427.
- ▶ 윤성희(2015), 만 5세 유아의 그림으로 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이미지,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윤은주(2010), 유초연계의 재개념화: Dewey 와 Noddings 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73-292.
- ▶ 이경민(2015), 유·초 연계 북버디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읽기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9.
- ▶ 이보경, 김지은(2019), 유·초 연계 교육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5-33.
- ▶ 이영석(1989),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유아교육의 본질과 방향, 56-57.
- ▶ 이지유, 이종국(2020),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학술지*, 50-59.
- ▶ 이지혜(2016),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진우(2021), 예비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연수 프로그램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형빈(2019), 소규모학교 교육과정의 미래지향적 가능성 탐색, *교육비평*, 182-206.
- ▶ 장명림 외(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및 3·4세 연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 장원호, 김민진(2019),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1 학년 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초 연계교육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509-533.
- ▶ 정미경 외(2021),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실행 모형 탐색, *교육과정연구*, 65-91.
- ▶ 정미경 외(2021), 탄력적 교육체제 모델로서 초·중 통합운영학교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29-52.
- ▶ 조형숙(2016), 5세 유아를 위한 유-초 연계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

학논집, 241-264.

- ▶ 최은진(2021),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 연구학교에 참여한 교사들의 이야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최은화(2021), 유아교사의 역량과 놀이교수효능감이 유·초 연계를 위한 교사역할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20호 기획기사(2018.01.31.): 각국의 유·초등 연계교육 현황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신문(2021.05.19.): [일본] 만 3~5세 '유아교육 스타트 플랜' 책정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획기사(2015.06.23): 프랑스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1.28): [핀란드] 2015년부터 미취학아동 교육(pre-school) 의무교육화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20.01.15): [핀란드] 정부, 취학 전 교육을 5세 아동에게 확대할 계획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6.23): 중국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6.23): 영국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 ▶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국가별 동향(2015.06.23): 독일의 학령기 이전 교육체계
- ▶ 대전광역시교육청(2016), 대전광역시 유치원·초등학교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
- ▶ 대전광역시교육청(2019), 대전광역시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 편성·운영 지침
- ▶ 강원도교육연구원(2019), 강원도 유·초·중·고교 연계 교육과정 기초 연구
- ▶ 한국교육개발원(2020),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 체제 운영 방안 :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 ▶ 세종일보(2021.01.05), <http://www.m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73>
- ▶ 대전일보(2021.08.23),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4906
- ▶ 브레이크뉴스(2021.06.17), http://dk.breaknews.com/sub_read.html?uid=156916
- ▶ 대경일보(2020.11.17),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248>
- ▶ 대구경북뉴스(2021.02.16), <http://www.dg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12>
- ▶ 내일뉴스(2021.03.19), <https://blog.naver.com/papercup2/222280403494>
- ▶ 경상북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 <http://www.gbe.kr/parent>

유·초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소정(운곡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원 | 구상미(운곡초등학교 교사)
이유진(운곡초등학교 교사)
이춘영(운곡초등학교 교사)
최은아(운곡초등학교 교사)
김마리나(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문남정(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선희(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지도위원 | 장준호(운곡초등학교 교장)
정현선(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발행일 : 2021년 12월 24일

발행인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정인보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054-840-2278)

보고서탑재 : <http://school.gyo6.net/gber>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홈페이지/정책연구/정책연구담당/정책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